

이화동창

총동창회 대바자회 / 가볼 만한 이화의 전시회 / 이화인 모임 탐방-이화발레앙상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2



07



11

이화동창

2018년 가을 제152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가을의 이화본관
(화선지에 수묵담채, 110×209cm, 2012년)

02 2018년 총동창회 대바자회	“함께 만들고 함께 팔아서 흥겨운 모교 장터로 나들이 오세요”
07 특집/기본 만한 이화의 전시회	가을, 캠퍼스 산책을 부르는 특별한 전시들
11 이화인 모임 탐방	이화발레앙상블
15 축하합니다	최영애 동창 외
17 총동창회 소식	9월 정기 임원회에서 이경숙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추대
18 선교부 소식	제39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19 모교 소식	이화 CEO 총장 초청 만찬 외
24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동물 질병 진단회사 대표 김정미 동창
30 모교사용설명서	이화가족카드 발급 안내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 문용자 동창
36 이화의 이곳저곳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40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감사하며
42 대학(원) 소식	자연대학 외
45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49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55 동창 근황	문화 동창 외
67 동창이 폐낸 새 책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명실(영문 78, 총무)
이영희(사학 88, 흥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조성아(정외 8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8년 가을 152호

발행 2018년 10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8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대바자회

“함께 만들고 함께 팔아서 흥겨운 모교 장터로 나들이 오세요”

9월 13일(목),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 동창회의 활성화와 친목 도모, 행사기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가 총동창회 주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대강당을 끼고 원편으로 돌자마자, 줄지어 늘어선 파란 천막 물결 아래로 갖가지 부스가 울긋불긋 펼쳐져 있었다. 양말, 속옷, 모자, 신발 등의 의류에서부터 여심을 사로잡는 화려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 온 참기름, 된장, 청국장, 젓갈, 말린 표고나물 등의 각종 농산물, 학과의 특성을 살려 만든 천연화장품과 마스크, 화장비누, 유아용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을 망라한 종합 쇼핑몰이었다.

핫도그에서 누룽지까지 먹는 게 남는 것

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은 역시 먹거리. 첫 발길이 닿은 곳은 시장기를 달래줄 핫도그와 유기농 에이드를 파는 조형예술대의 푸드트럭이다. “젊은 후배들의 트렌드에 맞추려면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 올해 처음 푸드트럭을 부르게 되었어요.” 봉지회(섬예 85, 조형대 회장) 동창은 “먹거리도 유행에 앞서가는 조형대”라고 자랑한다. 고급 제과점 빵에 아질산염 없는 빅 소시지를 넣어 만든 ‘핫도그’, 거기다 유기농 유자와 사과 푸레 원액 에이드까지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달인이 만든 달인표 꽈배기 3개 2,000원!”을 외



총동창회 윤순희·김순영 고문과 김영주 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들(사진 1, 2) 모교 김혜숙 총장이 동창들이 준비한 바자회장을 둘러보고 격려했다(사진 3) 많은 동창들로 북적이는 바자회장(사진 4, 5) 젊은 감각의 음식을 선보인 조형대의 푸드트럭(사진 6)

치는 융합보건학과의 부스 옆에는 수학과에서 닭강정, 순대, 식혜를 팔며 먹음직스럽게 ‘빨간 맛’ 닭강정 시식 코너까지 마련해 놓았다. 그 옆에서 사범대 동창들은 커다란 함지박에 각종 채소를 썰며 야채전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김상희(가관 81, 과 회장)·한상미(가관 82, 과 부회장) 동창은 매대 앞을 지나는 동창들에게 인삼열매 쌀국수와 현미 흑초를 그릇에 담아 젓가락까지 손에 쥐어 주며 시식을 권했다. “드셔 보세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건 먹어 봐야죠. 4년 된 인삼과 유기농 쌀로 만들어 특허까지 받은 쌀국수와 국내산 유기농 현미로 숨 쉬는 항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흑초예요.” 구수한 쌀국수를 먹고 후식으로 새콤한 흑초까지 마시니 입맛의 시작과 끝을 한자리에서 해결한 셈.

건강식품으로 소문난 귀리 음료를 수입 판매하는 오트리 대표 김혜정(물리 86) 동창의 기증으로 3년째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물리학과. “귀리

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거 아세요? 귀리 라떼, 귀리 초코, 귀리 오렌지 망고, 끝이 없어요.” 오늘 하루 최은영(물리 87, 자연대 회장) 동창은 귀리 홍보 대사를 자차하고 나섰다.

아직 낮 12시도 안 된 시각. 추석 상차림의 메인 양념인 참기름, 들기름, 참깨, 들깨가루를 판매한 행정학과에서는 “기름 200병이 이미 사전 판매되었고 이곳에서 택배 주문까지 받아 품절”이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최희숙(행정 88, 과 회장) 동창과 몇몇은 벌써부터 자리를 정리하면서 주문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너 장의 A4 용지에 주문 받은 내역이 빽빽하다.

막된장과 무방부제 생강 조청, 누룽지를 판매하는 무용과에서는 구수한 누룽지에 짜지 않은 핸드 메이드 막된장을 빨라 매대 앞을 기웃거리는 동창들에게 한입씩 권한다.

귀농한 지 10여 년이 된 이정수(가관 73) 동창은 부부가 함께 밭에서 기른 농작물로 참기름, 들기



핸드메이드 제품을 준비한 도예과와 생활환경대(사진1, 2) 애견간식을 준비한 체대(사진 3) 장애인 사회적 기업 오토스타의 제품을 내놓은 특교과(사진 4) 장류, 셰프의 수제 소스 및 먹거리, 액세서리 등을 준비한 식영과(사진 8) 등 각 부스마다 특색 있고 질 좋은 상품들이 많았다

름, 더덕청국장, 조선된장 매실장아찌를 직접 담가 먹는 소박한 농부였다. “너 혼자 좋은 거 먹지 말고 만들어 팔아, 우리도 같이 먹게”라는 친구들의 성화에 요것조것 조금씩 팔다가 아예 ‘정수네 농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더덕을 넣어 잡내를 없앤 청국장’ ‘매실, 오이, 고추로 만든 맛깔스런 장아찌’를 무기로 아예 사업 전선에 뛰어든 사례. 대바자회 장터는 그야말로 유기농 농산물과 수제 먹거리들의 풍년이었다.

한낮이 되어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자 액세서리를 파는 곳에 진열된 은제 목걸이, 귀고리, 반지

들은 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반짝거리며 고객들을 유혹했다.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동창들과 재학생들은 ‘무조건 1+1’ ‘납품가보다도 더 싸게 가져가세요’ ‘올가을 패피(패션 피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외침에 발길이 붙잡혀 너도나도 바구니 한가득 장신구를 담는다. 올해는 의류직물학과, 생활환경대학, 기독교학과, 섬유예술학과, 간호대학 등에서 액세서리 판매에 나섰다. 특히 마송이(간호 98) 동창은 취미로 시작한 퀼트와 핸드메이드 액세서리가 주변의 인기를 얻는 바람에 아기자기한 소품 매장을 1, 2호점까지

열었다고 수줍게 자랑한다.

전공 살린 이색 제품들로 고객을 사로잡아라

동창들이 전공을 살려 직접 제작한 제품들도 바자회 매상을 올리는 데 한몫했다. 그중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은 디자인대학원이 선보인 비누와 수세미. 아름다운 배꽃 디자인에 글리세린까지 듬뿍 들어간 고보습 수제 이화비누와 배꽃 모양 손뜨개 이화수세미였다. “어쩜 누가 꽃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감탄하자 “저희가 만든 사람인데요. 이건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비누예요”라는 문경숙(디자인매니지먼트전공, 재학 중) 재학생과 임영미(디대원 15) 동창의 설명에 자부심이 물어난다. 저렴한 가격,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내세운 인기 만점의 수세미와 수제 비누는 오후 3시가 되기도 전에 완판되어 뒤늦게 물건을 사러 온 동창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어린이를 위한 ‘DIY 바느질 키트’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부 지원 청년창업을 하게 된 김샛별(융합보건 10) 동창의 제품에도 동창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동창은 소근육과 뇌 발달에 손놀림만 한 것이 없다는 것에 착안, ‘바느질하다’는 뜻의 ‘스티처(Stitcher)’라는 회사를 차렸다. 부드러운 소재의 가죽 원단과 안전한 바늘과 실로 구성된 바느질 메이킹 키트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바느질을 하다보면 어느새 미니백, 크로스백, 필통이 탄생한다.

제약학과에서는 전공에 걸맞게 보툴리눔 유래 성분에 특허기술 소재 ‘건조 바이오셀룰로오스’ 시트를 사용해 만든 리프팅 마스크팩 ‘셀프톡스’를 선보였다. “우리 과 동기가 개발하고 또 다른 동기가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이 마스크팩은 주름 개

선과 미백 효과, 피부탄력 회복에 탁월해요. MTD라는 특수 공법으로 만들어져 피부에 흡수도 잘 되고요. 이거 한 장만 써 봐도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김상리(약학 83) 동창의 설명이다. 주사가 아닌 바르는 보툴리눔톡스는 세계 최초로 국제 화장품 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 효과가 자못 궁금해져 샘플로 받아온 마스크팩을 오늘밤 꼭 써봐야겠다는 의욕이 마구 샘솟는다.

함께 만들고 함께 팔아서 훈훈한 축제

같은 과 동창들끼리 한마음이 되어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들에는 저마다 즐거운 사연이 숨어 있다. “제가 운영하는 바리스타 학원에 동창들이 함께 모여 디톡스칩과 청귤청을 만들고, 원두를 갈아 일일이 드립백 작업을 했어요. 어제까지 숨가쁘게 작업하느라 고생스러웠지만 즐거운 추억도 함께 만들었지요.” 강신애(사회과교육 88) 동창이 설명하자 다른 동창들의 표정에도 30년 전 교정을 누비며 동고동락했던 훈훈함이 엿보인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레몬, 자몽 등의 과일을 저온에 말린 디톡스칩은 모양도 예쁘고 저렴해 최근 핫한 아이템. 색깔과 효소가 살아 있어 효과도 그 만이다. 제주도에서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수확한 풋귤로 만든 청귤청도 매상을 올리는 혜자 상품이다.

‘30년 주부 경력 임원들이 직접 담근 매실청’ ‘오장육부 얼어붙는 시원한 매실청 음료’라는 광고를 내건 동양화과의 매실청도 이번 바자회를 위해 매실 수확철인 봄에 동창들이 모여 미리 담가놓은 것. 얼음을 넣은 컵에 매실청 원액을 따라 즉석에서 제조하는 매실청 음료는 장보기에 지친 동창들

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 준다.

정외과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넣어 하루 종일 달인 맛간장을 선보였다. “동창들이 정성 들여 만든 이 간장을 원가도 안 되는 단돈 만 원에 팔아요. 갈비찜이나 조림 요리에 이것이 빠지면 맛이 안 나죠. 이 간장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꼭 사갑니다.” 신은영(정외 86, 과 회장) 동창의 제품 홍보를 듣자니 어느새 요리에 영 자신이 없는 동창이라면 반드시 사야만 하는 필수 구매 아이템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사회에 기여도 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룽지 좀 맛보고 가세요!!” 고급스런 포장의 누룽지를 팔고 있는 공과대 부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공과대에서 누룽지라니, 그 사연이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30년간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다니던 이주연(컴공 88) 동창이 작년에 누룽지칩 전문회사를 창업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누룽지 만드는 게 쉬워 보여서 선뜻 덤벼들었다가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죠. 쌀의 판로를 고민하던 농촌 어르신들을 돋자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페이스북, 블로그를 이용한 SNS 마케팅 등 정보화 교육을 도와드리다가 “자네가 해볼 텐가? 벤처 사업보다 훨씬 쉬워”라는 공장장님의 권유에 아예 창업을 해 버렸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쌀의 도정에 따라 누룽지 맛이 달라지는데 벤처 기업에만 있던 제가 뭘 알았겠어요?” 무농약 베에서 생산되는 정말 좋은 쌀을 선택하는 일, 현미 허브 누룽지, 양파 누룽지, 황태 누룽지 등 새로운 누룽지 가공법을 개발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크기에 ‘쌀에서 배우고 쌀로 건강을 지키자’는 슬로건이 가슴에 와 닿는다.

모교 사회종합복지관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화사회복지센터’ 개설 기금 마련 바자회를 준비한 사회복지학과, 자폐장애인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생활팬시용품(모교의 산학협력 사회적기업 오토스타 제품)을 판매하는 특수교육학과, 여성농민연합회 및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 소보마실과 뜻을 모아 ‘여성 농업인과의 콜라보’를 내세운 철학과도 ‘더불어삶’을 실천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경우다.

올해도 어김없이 총동창회에서 판매하는 1kg짜리 저염 백명란은 일찌감치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그 명성을 익히 알고 미리미리 구매를 서두른 동창들 덕분이다.

쨍쨍하던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긴 그림자를 만들 즈음, 부스를 정리하고 뒤풀이를 준비하는 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간만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 나들이를 왔다가 ‘득템’까지 했다며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일일이 꺼내 자랑하는 동창들,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쓰고 카드 결제까지 해가며 충동구매를 했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질 좋고 탐나는 물건들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히는 동창들. 양손에 바리바리 담아 든 물건들은 비록 무거웠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만은 가벼워 보였다.

이번 대바자회장에는 행사를 주관한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의 윤순희·김순영 고문, 장명수 재단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이 방문해 동창들과 환담을 나누며 노고를 격려했다. 바자회 준비로 애쓴 각 과의 동창들은 오후 5시 행사를 정리하고 뒤풀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끈끈한 ‘전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가을, 캠퍼스 산책을 부르는 특별한 전시들

어쨌든 굴러가던 일상이 이화 교정을 펴 올리는 순간이 있다. ‘여전하겠지? 변했을까?’ 맹렬하게 여름을 견뎌낸 뒤 살짝 지친 맙이 문득 설레어 ‘나서 봐? 말아?’ 저울질한다. 그렇긴 해도 누가 오라거나 가라거나 잡아끄는 것은 아니라서 모처럼 수면 위로 떠오른 모교 캠퍼스 방문의 충동은 일상에 지고 만다. 그런데 2018년 가을은 좀 다를 것 같다. 캠퍼스 산책을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전시가 있으니, 그것도 넷이나.

‘이화 동아리, 전통을 이어가다’ – 이화역사관

이화역사관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 이화학당 최초의 한옥 교사를 복원하여 개관한, 이화의 전통과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곳이다. 어디 과거뿐일까. 21세기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의 비전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기념비적 공간이기도 하다. 연대기적으로 이화 역사를 구성하는 상설 전시에 더해 역사관은 2018년 올해의 전시로 ‘이화 동아리, 전통을 이어가다’를 마련했다.

이화는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학생 활동을 통해 이화인의 개성과 특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중앙 동아리 78개 가운데 해방 이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이화문학회(1961년부터), 이향회(1967년 법정대 서예반으로 출발), 불교학생회(1969년부터), 민맥(한국 근현대사 연구회로 1974년부터), 예율회(1975년 클래식 기타 연주로 출발), 이화합창단(1976년 문리대 합창단으로 창단), 검도부(1992년부터 시작) 등 7개 동아리가 참여해 주었다. 해방 이전 학생 활동은 2012년 기획 전시된 바 있다.

전시실에는 각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증언하는 행사



이화역사관

사진, 정기 간행된 회보, 각종 소책자와 전단지, 손글씨로 써 내린 날적이 등 다양한 사료가 등장했다. 동아리 회원들의 애정을 오롯이 담은 채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온 전시물들을 마주하니 이화 132년의 전통과 역사가 고이 되살아나며 무게감 있게 마음을 흔든다.

전시실에서 손현지(사학 01) 학예연구원을 만났다. ‘예상치 못한 일렁임이 있었다’는 관람 소감을 건네자, 미소를 짓는다. “들어올 때 기대보다 관람 후 더 만족하고 가시는 분이 많아요. 재학생, 동창생도 오시지만 외국인 방문도 적지 않고요. 한옥도 좋아하시고, 작은 학당으로 시작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화의 역사에 감동받는 것 같아요.”

정갈한 한옥과 화사한 배롱나무를 배경으로 이화역사관 방문 기념 셀카는 필수. 귀가 하는 대로 장롱 속 졸업 앨범의 면지라도 털어내야 할 것 같은 애틋함이 찾아드는 것은 “문헌자료든 사진·동영상 같은 자료든 졸업장이나 표창장, 기념품 같은 유물 자료 무엇이

라도 기증해 주시면 소중히 보존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겠다”는 손 학예사의 말에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화 역사 관련 자료 기증이야말로 이토록 멋진 역사관을 ‘내 집’으로 만드는 지름길일 테니까. 종종 찾아가고 싶은 곳이다. 정문-ECC-본관-진선미관-아령관-총장공관-이화역사관 코스를 동선으로 추천한다.

- 전시 기간 : 2018년 5월 23일(수)~2019년 5월 18일(토)
- 관람 안내 : 월~금 9:30~16:30 / 토 9:30~12:00
- 기증 문의 : 02-3277-3199

‘역사 속 식물’ – 이대자연사박물관

이대자연사박물관 기획전시는 테마가 좋고 콘텐츠를 꼼꼼히 채우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 올해 2월 선보인 특별기획전 ‘역사 속 식물(Plants in History)’ 또한 그러하다. 전시 제목만으로도 솔깃하다. ‘이화 동아리, 전통을 이어가다’와 마찬가지로 해를 넘겨 계법 길게 호흡하는 전시이니, 관람 계획에 여유를 두어도 되려니 싶지만, 경험칙상 그러하다. 그러다 놓친다.

이대자연사박물관은 조형예술대학 A동과 B동 사이에 있다. 건물 화단에 꾸며진 자그마한 야외 식물원에 눈길을 주며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니 익룡과 플래카드 등 로비



이대자연사박물관

인테리어가 아기자기하다. 박물관을 찾는 다수가 어린이 관람객임을 짐작케 한다.

전시 규모가 작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지만, 그렇다고 만만해지는 주제는 아니다. ‘질병을 치료한 뿌리와 줄기’, ‘변화의 중심이 된 일’, ‘인류를 매료시킨 꽃’, ‘문명의 에너지 열매’, ‘역사 속 식물의 변신’ 등의 섹션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식물의 이용 부위와 적용 분야에 따라 식물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상기하며, 역사 속의 식물을 조명한다. 이 경희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찬찬히 관람하길 20여 분. ‘나’라는 작은 존재가 ‘생명, 자연, 우주’로 확장되는 느낌이다.

이대자연사박물관은 1969년 11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자연사박물관. 서수연(생명 96) 학예연구원이 그 의미를 짚어 준다. “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 보존 할 국가 기관이 없었던 시절에 이대자연사박물관이 그 공백을 메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0만여 점 이상의 자연사 표본이 지금은 멸종 위기가 된 여러 동식물의 복원 근거가 되고 있어요. 대학 내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 학과나 기관과 산학 협업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꾸준히 지원을 해 주어 타 기관의 전시, 교육의 모델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요. 대학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내실 있는 박물관이라 자부합니다.”

- 전시 기간: 2018년 2월 1일(목)~2019년 11월 30일(토)
- 관람 안내: 월~토 10:00~16:00
- 단체 방문 및 도슨트 전시 해설 문의 예약: 02-3277-4700

‘이화의 교수 작품 기증전’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35년 본관 109호에서 출발하여 1960년 현재 조형예술 대 건물에 단독 박물관으로 신축 개관한 뒤, 1990년 모교 창립 100주년 기념 박물관 신축으로 재개관한 박물관은 오늘날 고대와 현대를 잇고 미래를 모색하는 문화공간다운 면모를 갖추며 소장,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기능과 역량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은 그간 교수와 동창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 인사들의 기증으로 소장품이 더욱 풍성해진 데 힘입은 바 크다. 이화 기증 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새겨 보는 전시회가 5월 10일(목)부터 열리고 있다. 이화 창립 132주년을 기념하는 ‘이화의 교수 작품 기증전’.

1945년 예림원 미술과에서 시작되어 1960년 미술대학으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로 인가받음과 동시에 4개 학과로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소속 대학의 교수들이 박물관에 소중한 작품을 기증하기 시작하였고, 이 작품들이 현재 박물관의 근현대 미술 수집품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로도 조형예술대학 교수들의 작품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선(회화·판화 02) 학예연구원은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본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들의 작품 세계와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한다.

1948년 인물화(캔버스에 유채)인 〈화실에서(김인승 교수)〉부터 2010년 비구상화(한지에 수채)인 〈무제-2010-7(이규선 교수)〉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이화동창》의 표지화로 낮이 익은 오용길 교수의 수묵담채 풍경 〈이화 교정〉을 만나 더욱 반가웠다.

- 전시 기간: 2018년 5월 10일(목)~12월 31일(월)
- 관람 안내: 월~토 9:30~17:00(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19:00까지), 지하 1층 기증 전시관

‘고려 왕조 건국 1,100주년 기념 전시’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고려 왕조는 918년부터 470년간 지속되었다. 건국으로부터 따지면 올해 1,100주년을 맞는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이를 기념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려 미술품 60여 점을 공개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물은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紺紙銀泥妙法蓮華經卷七·보물 제352호)』. ‘묘법연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경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된 『법화경』을 말하며, 검푸른 색의 종이에 은가루로 불경의 내용을 옮겨 쓴 것으로 전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이다. 고려 우왕 때인 1386년 죽산군부인 김씨가 왕과 나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여 시주하여 만들었다는 등의 간행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다.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최근 보존 처리가 완료되어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이 경전과 함께 만들어진 청동 소탑과 범종, 반자(半子), 은입사 향완 등의 미술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고, 고려 금속공예의 정교하고 화려한 제작 기법이 드러나는 침통, 동경, 허리띠 등도 볼 수 있다.

- 전시 기간: 2018년 2월 19일(월)~12월 31일(월)
- 관람 안내: 월~토 9:30~17:00(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19:00까지), 상설전시실 1층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박물관의 고려왕조 전시물

〈메시아〉 공연은 ‘이화 프로덕션’의 ‘기적’

이화발레앙상블은 모교 무용과 신은경(무용 78) 교수가 재학생 및 동창 제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 연구와 발표를 통해 대중과 발레로 소통하기를 지향하며 창단한 발레단이다. 대표 작품인 〈메시아〉는 2003년 첫 공연 이후 올해로 열네 번째 무대에 올려질 정도로 뚱런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공연은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총동창회 선교부, 무용과, 이화발레앙상블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화’가 그 열정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공연 〈메시아〉의 산실 이화발레앙상블을 소개한다.

춤에 대한, 특히 발레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지만 이화발레앙상블을 취재하러 가는 발길은 가볍지 않았다. 몸치의 춤에 대한 경계심, 클래식 발레에 대한 무지함이 인터뷰를 앞두고 한층 긴장감을 높여 놓았기 때-



모교 무용과 신은경 교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유관순 서곡〉 공연(왼쪽)과 〈시편 교향곡〉공연(오른쪽)

문이었다. 인터뷰를 약속한 오후 버스 안에서마저 사전 조사하고 뽑아놓은 예상 질문지에 밀줄 그어 가며 집중하고 있는데, “저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발레하시나 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2시간 가량 취미로 발레를 5년째 배우고 있는데, 반가워서 아는 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한 승객의 참견이었다. 옆에 앉았기에 의도치 않게 엿보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한다. “발레라니요. 무슨…” 하고 말꼬리를 흘리는 부끄러움에도 주책없이 속마음은 환해져 왔다. 몸치를 ‘발레하는 사람’처럼 보아 주는 고마움에 대한 답례랄까? 슬그머니 몸의 각 부위들이 재편성되었다. 등허리는 곧추서려 했고, 목은 길어지고, 표정은 우아해지는 방향으로.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동안 긴장감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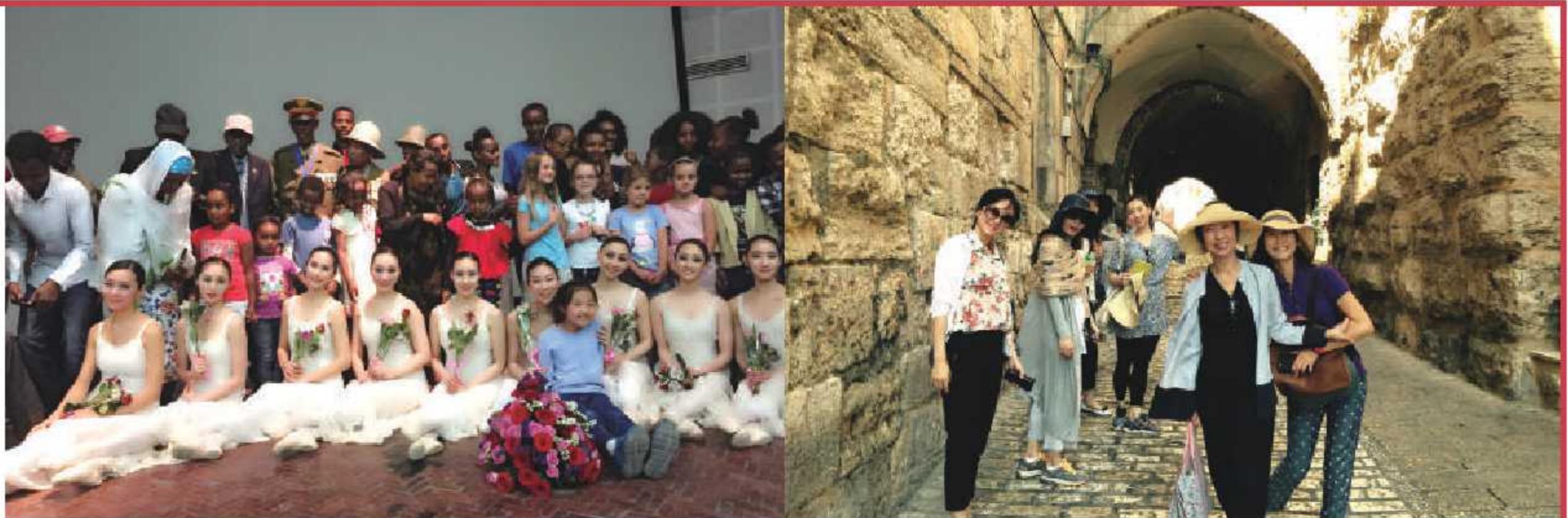
우연하게 만난 발레의 매력이랄까, 저력은 그랬다. 그러다가 체육관 C동 3층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진짜 발레리나, 발레리나의 포스 그 자체와 마주쳤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들어갈까요?”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상대를 반겨 들이는 환한 표정, 상냥한 목소리, 단아한 제스처. 이화발레양상

블 예술감독 겸 안무를 맡고 있는 신은경 교수였다.

연구실은 간결했다. 신 교수가 스승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소박한 책상과 교직을 맡고 처음 장만한 것이라는 책장은 낡았지만 클래식한 멋짐을 뽐는 목가구였다. 의자를 당겨 앉은 신은경 교수는 “이화발레양상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실 거예요?”라며 다정하고도 상대의 심장에 정확히 꽂히는 눈빛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다.

알 수 없었다. 긴장감을 유발하는 돌직구 질문에, 도리어 “모르겠어요”를 자백하게 되는 이 마음. 그렇게 긴장감도 무지도 무장해제 당한 채 1시간 반, 신은경 교수로부터 이화발레양상을 하여금 ‘기적’ 같은 〈메시아〉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든 이야기를 들었다.

이화인 모임으로 이화발레양상을 떠올린 것은 공연 〈메시아〉 때문이었다. 〈메시아〉는 헨델의 음악 〈메시아〉를 토대로 예수의 생애를 통해 구원과 용서, 사랑,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화발레양상의 대표 창작 발레 작품이다. 2003년 12월 6일 초연 이후 꾸준히 국내와 해외 무대에서 헨델 음악과 발레의 환상적인 이미지에 현대적 동작을 절묘하



에티오피아 공연을 끝내고(왼쪽) 이스라엘 공연에 갔던 단원들과 함께(오른쪽)

게 조화시키며 탁월하게 심리를 묘사하여 이야기적인 감동을 이끌어낸 수작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화발레앙상블이 창단된 것은 1992년. 예술감독과 안무를 신 교수가 맡고 있으며, 단원들은 그 누구랄 것 없이 모두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발레 무대를 예비해 두고 있는 이화의 발레리나이며, 또한 이미 공연계 또는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원이다. 하지만 이화발레앙상블은 전문 직업 발레단이 아니고, 단원도 고용된 이들이 아니다. 하여 무대에 오르고 연습에 참여하는 단원들은 빠듯한 각자의 일상에서 연습할 시간을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공연 스케줄이 생기면 새벽 7시 반부터 연습을 합니다. 재학생들은 9시 반이 되면 각자 수업 스케줄이 있어서 빠져나가요. 동창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친구가 다수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공연 준비와 연습에 시간을 할애하는 노고가 만만치 가 않아요.”

단원 중에는 결혼해서 육아 중인 동창도 있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앞장을 서준다. 1회 공연부터 쭉 함께한 단원도 있고, 임신 5개월의 동창도

함께 무대에 선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따라간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쁜 마음들을냅니다. 봉사의 마음이지요. 해외 공연에 참여할 때에는 금전적인 부담을 자비로 떠안기도 하고요. 공연으로 생긴 수익금은 대부분 동창들의 선교 활동에 쓰입니다. 나이는 어려도 여러 마음을 내고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걸 지켜보면 성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로서는 감사한 일일 따름”이라는 신은경 교수의 말은 수사나 빙말이 아니다. 그래도 솔직히 세월이 흐를수록 몸이 힘들고, 매 공연마다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라는 마음속 말을 되뇌울 때도 없지 않다.

가령, 2016년 열세 번째 〈메시아〉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형식적으로는 국내 최고의 무대와 기술을 사용했고, 공연에 참여한 단원도 80여 명, 공연 시간만 1시간 40분짜리여서 인터미션을 두었단다. 올해 열네 번째 〈메시아〉의 경우는 모교 대강당에서 공연되었다. 무대도 다르고, 참여 단원 수도 55명 선이어서 인터미션 없이

1시간 20분짜리로 공연을 맞추어야 했다. 이 정도면 〈메시아〉는 매 공연마다 다시 창작되는 셈이다.

“공연 스케줄이 정해지면 단원들과 함께 성경 텍스트를 현실과 연관시켜서 다변하고 복잡한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시대적 메시지를 연구해요. 회를 거듭하면서 공연을 보완하고 다듬어가고 있지요.”

무대에 올리는 횟수가 늘수록 커지는 부담감을 토로하던 신은경 교수의 목소리가 금방 환해졌다.

“분명한 건 힘들보다 기쁨과 보람이 더 크다는 거지요. 현재의 〈메시아〉는 종동창회가 주최하고, 종동창회 선교부와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이화 발레양상블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서적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아〉 공연이 ‘이화 동산’에서가 아니라면 이토록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기가 가능했을까요? 큰 그림은 이화가, 더 큰 그림은 다른 분이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화발레양상블은 그 재능을 꺼내 놓는 아주 작은 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화가 쌓아 놓은 기도와 하나님에 기뻐하는 일 이기에 내년을 기다리며 또다시 공연 준비에 들어간다는 신 교수는 이화발레양상블의 출발은 신 교수 개인과 발레 전공 제자들의 공연 및 연구 발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2003년 첫 〈메시아〉 공연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공연 준비 과정과 공연 후 학교와 종동창회-각 학과 동창회와 국내 외 지회, 선교부, 홍보팀들까지-가 모두 함께 나서서 기도해 주면서, 국내외 다른 대학은 물론 미국의 하버드, 스미스 칼리지 같은 대학이나 호주의 시드니, 이스라엘 같은 나라의 제법 큰 무대에 도 오르게 되었다고 했다. 누군가 이를 두고 “〈메

시아〉는 ‘이화 프로덕션’의 작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 교수는 매우 적합한 표현이라며 크게 공감했다.

이화발레양상블의 활동 가운데 〈메시아〉 공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클래식 발레와 창작 발레를 두루 섭렵하고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장르와도 협연하며 대중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

해외에 나가면 교민 교회의 요청에 짬을 내어 공연하곤 하는데, 단원들은 내로라하는 큰 무대보다도 이처럼 관객의 눈빛이 조명이 되는 작은 무대에서, 동티모르·에티오피아·인도·캄보디아의 불가촉천민 거주 지역 등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니라 공연을 올리기 힘든 공간에서 오히려 빛났던 공연들을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한다.

이번 학기가 끝나고 3년 뒤 퇴임 예정인 신 교수에게 이화발레양상블과 〈메시아〉 공연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 이화와 발레와 메시아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1월에 공연 예정된 작품 〈The Letter〉와 12월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올릴 〈메시아〉 공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러고는 이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눈빛으로 반문한다. “‘이화 프로덕션’이 이화발레양상블을 통해 이루어낸 무대 〈메시아〉. ‘기적’이란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달리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화니까, 이화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최영애(기독 74) 동창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최영애 동창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임명장 수여식은 9월 4일(화)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다. 최 동창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지냈으며, 내정 전까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았다.



박정옥(과교 81) 동창 **KBS교향악단 신임 사장에 선임**

박정옥 동창이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신임 사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9월 1일(토)부터 2021년 8월 31일(화)까지 3년이다. 박 동창은 KBS에 입사한 뒤 TV 프로듀서로서 〈세계의 문화도시〉 시리즈, 〈문화탐험〉, 〈KBS스페셜〉, 〈TV미술관〉 등 다수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박종서(과교 82) 동창 **신임 제주지방기상청장 임용**

박종서 동창이 6월 18일(월)자로 신임 제주지방기상청장에 승진 임용되었다. 박 동창은 기후과학국 이상기후팀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국가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주 첫 여성 청장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김인선(사학 83) 동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취임**

김인선 동창이 7월 9일(월) 제4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동창은 사회적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1년 7월 8일(목)까지 3년이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고암미술상' 수상**

정정엽 동창이 제4회 고암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충남 홍성군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에서 주관하며,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해 오고 있다. 정 동창은 시상금 2,000만 원과 함께 2019년 수상작가

전시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 동창은 강원도 춘천 이상원미술관 관객 참여 전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가로 나서 6월 26일(화)부터 9월 2일(일)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노정희(법학 86) 동창 **대법관 취임**

노정희 동창이 대법관에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8월 2일(목)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있었다. 역대 일곱 번째 여성 대법관인 노 동창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제21대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배수아(화학 88) 동창 '**2018 오늘의 작가상**' 수상

배수아 동창의 소설 『뱀과 물』이 '2018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오늘의 작가상'은 민음사가 1977년 제정한 상이다.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배 동창은 한국일보문학상, 동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정열(사회 89) 동창 **한독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9월 3일(월) 제약기업 한독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3월 한독 이사회 사내이사로 임명된 바 있는 조정열 동창은 의약품, 소비재, 예술,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경영인이다.

이선영(영문 95) 동창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 신임 대표 선임**

이선영 동창이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의 신임 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동창은 2006년 한국존슨앤드존슨 컨슈머 부서에 입사한 이후 오랜 마케팅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그룹 내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 사업부로 이전한 뒤 3년 만에 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정은영(서양 97) 동창 '**올해의 작가상 2018**' 수상

정은영 동창이 '올해의 작가상 2018'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은영 동창은 여성 국극에 대한 연구와 조사, 분석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시도해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이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할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되었다.



강서경(동양 00) 동창 **발루아즈 예술상 수상**

세계적인 아트페어 아트바젤이 매해 작가 2명에게 수여하는 발루아즈 예술상(Baloise Art Prize)의 올해 수상자로 강서경 동창이 선정됐다. 주최측은 작가에게 상금 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300만 원)을 수여하고, 수상작을 구매해 유럽 미술관 두 곳에 기증한다. 강 동창은 현재 모교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동창회 소식

9월 정기 임원회에서 이경숙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추대

2018년도 9월 정기 임원회가 9월 6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명실(영문 78) 총무가 출석 32명, 위임 3명으로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개회를 선언하였으며, 찬송가 502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2018년 9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였다. 한미경(물리 88) 서기가 6월 정기 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양수화(교대원 74) 교육대학원 회장의 동의와 경영대학 회장의 대리로 참석한 윤은주(경영 89) 경영대 총무의 재청으로 서기 보고를 통과했다. 보직 변경으로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왕혜정(경영 89) 회계가 6월 회계보고를 하였고, 임진(작곡 72) 음악대학 회장의 동의와 이정화(독문 74) 인문대학 회장의 재청으로 회계 보고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9월 13일(목) 열리는 총동창회 '대바자회'와 11월 26일(월) 열리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바자회 당일 행사장 앞 주·정차는 오전 7시 50분 이후부터 이유를 막론하고 일체 금지되니 부피가 큰 짐을 옮기는 곳에서는 필히 그 전에 짐을 옮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용카드는 무선카드기만 사용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전기선이 필요한 곳은

9월 7일(금)까지 총동창회 사무실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부스 앞까지 설치해 주며,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과별로 자체적으로 긴 전기선을 준비하여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이화인의 밤' 티켓은 10월 11일(목) 정기 임원회의 날 배포 할 예정이니 대학 회장들은 티켓을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우선, 윤후정 전 모교 총장의 통일포럼이 10월 12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다는 것을 공지한 후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두 번째 안건은 총동창회 고문 추대에 관한 건이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고문에 이경숙(영문 70) 모교 명예교수를 추천하고 회칙에 따라 투표에 부쳤으며, 임원회의 투표 결과 이경숙 명예교수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경숙 고문은 모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기독교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인문대 학장과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세 번째 안건은 모교 사이트에 올라온 '이화에 바란다: 3040 동창회 설립안'에 대한 건이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기존 동창회 외에 '3040 동창회'를 따로 만들자는 의견이 대외협력처 사이트에 올라왔다며 이에 대한 총동창회의 의견을 임원들

과 논의한 뒤 대학 회장들이 과 회장들과 합의하여 의견을 수정, 보충하여 제출하면 참고하여 최종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영(체육 80) 체대 총무는 몇 년 간 새로 졸업한 신입 동창들을 행사에 초대해 보았으나 매우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며 짚은 동창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

때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후보 4인 – 신승애(물리 63)·김인순(불문 65)·김영숙(약학 67)·장화인(심리 69) 동창 –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설명하며 전형위원들은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헌신을 해온 이화인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형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 외에 김미영 공대 회장 및 최인순(의직 79) 생활환경대 회장이 위촉되었다.

선교부 소식

제39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

제39차 단기선교학생 환송예배가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6월 12일(화)에 개최되었다. 다향방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1부 예배를 드린 후 1층 애찬실에서 오찬을 하였고, 오후에는 ‘동창 선교사의 날’ 시간을 가졌다.

1부 환송예배는 안영주(유교 88) 유교과 선교부 장의 기도로 시작하고, 노래선교단은 <축복하노라> 특송을 준비하여 찬양을 올렸다. 이어서 이화동창 선교사 송지나(약학 86) 동창의 남편 조수아 선교사(중국)가 ‘모세의 부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모세의 일생을 3기로 나누어 말씀하였는데, 1기 40세까지 그는 I am something인 줄 알고, 2기 광야 40년을 통해 I am nothing임을 알게 되었으며, 3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Servant of God이 되었다고 말했다. 합당한 사람이 되기 까지 8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며, 선교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임을 강조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모세를 택하시고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바로 은혜요 영광이라고 하였다. 한숙영(제약 79) 총동창회 문화부장이 격려의 말씀을, 문영자(영문 67) 선교사가 권면의 말씀으로 학생들과 동창들을 독려하였고, 장은혜(영교 85) 선교사의 남편 박종국 선교사(에티오피아)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LDI, CCC, 예수전도단, 노래선교단, 생명평화선교팀 등 선교장학생과 선교지원팀은 예배에 참석한 19명의 단기선교 학생들을 환송하



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는 주로 전라도 지역으로, 해외는 로마, 마카오, 세네갈, 인도, 중국, 필리핀, 홍콩 등으로 떠난다. 애찬 후 ‘동창 선교사의 날’ 시간에는 특히 부부 선교사 네 커플이 참석하였는데, 중국에서 송지나·조수아 선교사, 에티오피아에서 장은혜·박종국 선교사, 캐나다에서 정송(의직 81)·안우석 선교사, 코소보에서 장혜경(체육 90)·이성민 선교사 부부가 참석하였고, 인도에서 김혜경(외국어교육-불어 82) 선교사, 영국에서 전경숙(교공 80) 선교사가 참석해 삶

과 사역을 나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총동창회에서는 단기선교를 나가는 학생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동창들을 위해 식사와 떡을 준비하여 섬겼으며, 선교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후원금과 선물을 준비하며 마음과 정성을 나누었다. 특히 여름 단기선교에 꼭 필요한 ‘손선풍기’를 선물하여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 이날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에는 학생 19명, 동창 및 선교사 32명 총 51명이 참석하여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모교 소식

이화 CEO 총장 초청 만찬

모교는 5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총장 공관에서 ‘이화 CEO 총장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만찬에는 57학번부터 10학번까지 폭넓은 세대에 걸친 이화 출신 CEO 40명이 참석해 여성 CEO로서의 고충과 지혜를 나누며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혜숙 총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이화 출신 CEO들의 모임을 만들어 달라는 동창 CEO들의 요청이 많아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모임이 동창 CEO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은 물론 모교와의 상호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장구로 구성된 곽은아 한국음악과 교수팀의 ‘이화국악양상불’ 공연이 진행됐다. 또 동창들을 대표해 손혜경(사회과교육 80) (주)모터원 부사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창 CEO들과 모교인 이화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빈다”고 기도했다.

네트워킹 시간에는 참석자 40명 모두가 자신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영미(과교 80) (주)세미성 대표는 “오늘 이 자리가

이화 DNA를 재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김이숙(영문 82) 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앞으로도 이화가 만들어준 텃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농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찬에 참석한 동창들은 ‘여자는 여자가 돋고 이화는 이화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을 나누며, 향후 이화 출신 CEO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자고 다짐했다. 김훈순 대외협력처장은 “동창 CEO 모임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22만 이화동창의 저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동창 네트워킹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BBC 국제시사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모교에서 개최

영국 BBC 방송사의 유명 국제시사토론 라디오 프로그램 〈World Questions〉가 국내 최초로 한국의 서울, 그중에서도 모교에서 개최됐다.

〈World Questions〉는 정치, 문화 등의 오피니언리더들과 일반인들이 각 국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에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BBC 라디오 국제시사 프로그램이다. BBC 월드서비스를 통해 월 3회 방송되며 전 세계 7,200만 명의 청취자를 갖고 있다. 주한영국문화원과 BBC 월드서비스

가 공동 주관하고 모교 국제교류처(처장 최원목)가 후원한 이번 〈World Questions: Seoul〉 편은 분단된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6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모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국의 주요 현안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일반인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전문가 패널들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BBC 뉴스의 왕실 출입기자 조니 다이몬드(Jonny Dymond)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현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손지애 모교 국제학과 초빙교수(전 CNN 서울지국장),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진하 전 국회의원(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 패널 4명이 함께했다. 현장에는 사전에 참가신청한 모교 재학생, 일반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한국과 동남아에 미칠 영향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인들의 낙관적 반응 △현 정부의 남북관계 지향점(한반도 통일 VS 한반도 평화) △남북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 취업시장 변화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석한 함윤지

(국제학 17입학) 재학생은 “다양한 나이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남북 평화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교에서 열린 이번 <World Questions: Seoul> 편은 BBC 월드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모교, 월드비전에 아프리카 여학생 위생용품 후원금 전달

모교는 아프리카 여학생들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채플 헌금 1,000만 원을 국제구호개발 옹호 NGO ‘월드비전(World Vision)’을 통해 전달했다.

모교와 월드비전은 6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본관 접견실에서 아프리카의 ‘여아 기본권리 보호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과 위생용품 1,000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혜숙 총장과 한국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손바느질 생리대 제작에 참여한 모교 대학원생 김영은(성악 18입학)씨를 비롯해 월드비전 서울북부 지역본부 장영진 본부장, 박성준 팀장 등과 모교 장윤재 교목실장, 김동근 교수, 장정은·박희규 교목 등이 함께했다.

이번 후원금은 2018학년도 1학기 중 교직원 부활절 예배, 대강당 채플, 대학교회, 다향방전도협

회 등을 통해 모인 현금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 등 이화인 250여 명의 바느질로 완성된 면 생리대도 함께 전달됐다. 김혜숙 총장은 “모교는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학과(전 기독교사회사업과) 및 아동학과, 병원 등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아동, 산모, 소녀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공헌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움의 결실 안고 세상을 향한 첫 걸음,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8월 31일(금)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928

명, 석사 819명, 박사 126명 등 총 1,8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성경 봉독, 기도, 총장 말씀, 학위 수여, 축주, 교가 제창,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우리 동창들은 이화가 졸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학교라는 점에 모두 공감한다”며 “어떤 시간의 길목에서도 하나의 인간, 하나의 여성으로서 진정 자유롭고 온전한 생명으로 빛났던 이화에서의 시간을 항상 기억하고 이화 안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거나 노력해 온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격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 것, 이화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 것,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찾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졸업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에 학부를 졸업하는 생명과학전공 손영주 동창으로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학부 과정도 7학기에 조기 졸업했다. 전공을 살려 생명과학분야에서 우수 연구자를 꿈꾸고 있는 손 동창은 “이화여대에 입학 할 때 이화가 제 꿈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화가 제 꿈에 있어 좋은 발판이 되었다”며 “나이가 어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고령 졸업생인 68세의 장희숙(생명윤리정책 협동과정 박사학위) 동창은 “과학기술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생명윤리정책을 공부하며 학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국음악전공 한지훈 동창이 학부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으며,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장학생 6명을 포함해 가나, 나이지리아, 라오스, 러시아, 에콰도르, 타이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35명(학사 44명, 석·박사 91명)이 학사모를 쓰게 됐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모교의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이화에서 쌓은 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 27명 최종 합격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 27명이 최종합격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30일(목)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904명의 명단을 발표

했다. 지난 6월 20일(토)부터 7월 1일(일)까지 치러진 2차 공인회계사 시험에 2,750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32.9%이다. 지원자 및 합격자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여성 합격자도 27.4%로 지난해보다 1.7% 하락했다.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총 27명이 시험에 최종 합격해 회계사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모교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지원자 대비 전국 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올해까지 모교가 배출한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총 569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합격자 중에는 재학생이 16명이었으며, 경영학전공과 경제학과 외에 광고·홍보학전공, 국제사무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철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9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이화·신세계관 1층 International Lounge에서는 경영대학의 주최로 합격자 축하 모임이 열렸으며, 경영대학 교수, 회계사 동창, 합격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앞날을 축하했다. 김정권 경영대학장은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회계사 동창 선배들이 축하 자리에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니 이화 회계인들의 앞날이 더욱 밝을 것으로 확신하고, 현업에서도 서로 이끌어 주며 최고의 동창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이화공인회계사회 회장 서지희(경영 85·삼정KPMG 전무) 동창을 비롯한 회계사 동창 26명이 합격자들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올해 합격자인 이수빈(경영 11입학) 재학생은 “합격자로 축하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

이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화의 이름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회계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아현(커미부 18) 동창은 “공인회계사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공부하는 동안 도움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회계사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교 경영대학이 지원하는 공인회계사반(주임 교수: 박소라 경영학전공 교수)은 이화 여성회계사 배출의 요람으로서 회계사 진출의 꿈을 가진 이화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27명의 합격자 중 공인회계사반 출신의 합격자는 15명이다. 공인회계사반은 입실자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제1차 및 제2차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해 시험 준비를 돋고 있을 뿐 아니라, 고시 장려금 및 합격 장려금 등의 장학금 지급과 도서 구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53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동창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이도인(경영 13), 김혜연(경제 15), 박지현(경제 17), 권희영(경영 18), 박수빈(영문 18), 백아현(커미부 18), 윤현지(경제 18), 이예나(경영 18), 전민지(경제 18), 정소라(영문 18), 주서연(경제 1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동물 질병 진단회사 대표 김정미 동창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선택과 기회가 생겨요”



동물 질병 진단 키트를 개발, 생산하여 전 세계 112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동물 질병 진단 전문회사 베트올 대표 김정미(생명 86) 동창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1982년 생물학과(현 생명과학과) 입학, 서울대에서 석사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약리독성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MIT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국립보건원, 바이오메드랩, 이수앱지스 진단사업 총괄 팀장 등 공무원과 민간 기업 경력을 거친 후 12년 전 베트올을 창업했다. 창업하면서 2008년 여성창업 경진대회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사업성을 인정받았고, 같은 해 지식경제부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과 생산 기업으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무역의 날 1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산업통상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의 수많은 수상 경력과, 동물 질병 신속진단 기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유망 중소기업,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 다수의 인증과 특허 기술 등은 기술 기반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해 온 저력을 보여준다.

베트올은 동물 의료 분야 세계 5위권 내에 드는

세계적인 기업이라 들었습니다. 요즘 추세라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임신진단 키트와 같은 포맷으로 동물의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제품입니다. 키트를 이용한 동물 질병 진단 사업은 약 30년 전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경제 수준과 연계되어 생겨나는 시장이라서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반려자가 되어 프리미엄 사료, 메디컬 시스템 등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대상이 되지요. 즉 반려동물이 사람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반려동물도 고령화되며 각종 질병 문제가 파생됩니다. 노인견 문제는 관절병, 암, 비만, 심장질환 등 사람과 비슷합니다.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각종 규제도 생기고 동물 의료 보험 문제와 같은 일들도 발생할 텐데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동물 의료 보험은 아직까지는 아주 초보 단계 수준이고 현재 저희 사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습니다. 오히려 매 질병에 대해 진단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개발해야 할 진단 키트가 많아 확장성이 큽니다. 키트의 형태뿐 아니라 진단 기기나 휴대폰 어플, 사물인터넷 등 준비하고 기획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한 회사 운영 방침이 있나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 기반으로 보증 받거나, 바이오 업계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키워 왔어요. 집에는 손을 안 벌렸지요. 저당 잡힌 적도 없고요. 벤처 기업을 하다 보면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하여 망하는 회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금 문제로 가족이나 직원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벌일 때도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안 되더라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요. 직원들의 근속 년수도 째 길어요. 초창기에는 대기업으로 가겠다는 직원에게 연봉을 물어보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대표로서 직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은 계속 있고 싶은 회사를 만들도록 직원과 오너가 서로 경쟁을 하자고 말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이대 출신 여자들이 워낙 일을 잘해서 사회 요직에 있기는 하지만 사회에서 부딪히다 보면 죄다 남자였고, 특히 올라갈수록 여자가 안 보였어요. 대체 이것이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복합적인 결과겠지만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은 연대감 형성 능력이 뒤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개인들은 평균 레벨에서 중상 정도인데 그들이 연대를

형성하여 그룹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룹이 되더군요. 여자 쪽은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모여서 힘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여서 일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성공한 여자들을 보기 쉽지 않고, 왜 이리 힘들까?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서 일을 했고, 애초에 도움받을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도움받을 뭔가가 없었으니까. 제가 일을 할 때는 여자냐 남자냐를 생각 안 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자사장, 여자 대표로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고, 노하우를 전수받지도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의 멘토링 사업에 12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미래부가 이공계 여학생들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으로 10여 년 전 이대 중심으로 생겨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베트올-이화



베트올 직원들과 함께

바이오멘토링팀의 책임 멘토를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멘토의 풀이 계속 확장되어 22명에 달하고 멘티 180명이 우리 팀을 거쳐 갔습니다.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을 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멘티를 하면 계속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들었지요. 여성들도 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멘토링 사업을 통한 실험 결과로 입증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멘토의 도움을 받은 멘티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 멘티를 보면 힘들어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공계 여학생으로 공부도 끝까지 했고, 공무원, 벤처, 대기업, 창업 다 해 보았습니다. 웬만한 진로 분야를 거의 커버했지요. 제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 일을 해오는 것, 그것이 저의 사회 공헌 방식입니다. 저밖에 할 수 없는 도움을 주는 길. 바로 제 경험을 멘토링에 쓰는 것이지요.

언제 공부를 다시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미국에 처음부터 유학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석사야 좋아서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는 박사를 공부하려는 생각은 없었죠. 미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박사과정 중인 남편을 지원하고 영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어요. 부동산 텔레마케팅에 빌딩 청소 경험까지… 그보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박사과정을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게다가 학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첫 애를 박사 마치고 갖게 되면서 서른 살이 넘게 될 것 같아 첫 애 임신 중에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으로 들어갔으나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을 하고 싶어 약대로 바꾸었어요. 공부 양이 너무 많아 산바

라지하러 오셨던 큰형님께서 갓난아기를 데려가서 너 달 동안 키워 주셨지요.

몹시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군요.

힘들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생각 자체를 현실적으로 해요. 힘든 일이 벌어지면 저 것을 거쳐야 내일이 오고 그다음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힘든 일은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게임이라 생각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좀 쉬운 문제네. 이번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오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서 풀어갑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전 항상 생각해요. ‘죽기보다는 할 만하겠지.’ 스스로 암시를 준 것이 ‘세상에는 인재들이 많고 내가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가 핸들을 못하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마음이에요. 사업도 마찬 가지예요. 문제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거죠. 한 시간만이든 한 달만이든 찾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답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덜 고생하면서 좋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답을 찾아냅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지요.

왜 이대를 선택했나요? 수석 입학을 하셨지요?

저는 제주도 출신인데 이대는 그 당시 명문대였고, 여자라면 이대를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 그

냥 왔어요.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를 선택한 것이 지나고 나니 참 좋았습니다. 전 성격이 중성적인데 이대에 와서 여성의 스펙트럼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적인 여성부터 가장 여성적인 여성까지, 멋진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까지 다양한 여성들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여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 내에서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 트레이닝 되어, 혼자 실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요.

학창 시절 중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요?

시험 기간 중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가서 줄을 섰지요. 불문과 학생으로 기억하는데 그 학생은 항상 그 새벽에 풀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화장이 진하거나 멋을 부리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했었는데, 매번 똑같은 시간에 항상 단정하게 차리고 온 그 학생은 알고 보니 공부도 잘하는 완벽한 여성이었지요.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편견을 깨는 반전을 보여 주는 사례였어요.

인문사회계 친구들은 데모에 나서는 등 암울했던 시절이었지만 이공계인 저는 사회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사회 문제에 공감은 가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자리에서 잘하자는 게 제 소신이었어요. 지금도 뉴스를 잘 안 봐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나는 베트올 사장으로 충분히 노력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제외하고 계속 과 대표를 했지요. 졸업 후에는 동기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미국에서 10년 있다가 돌아온 후 앨범에



고교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김정미 동창

서과 친구 연락처를 추적하고 점조직으로 알음알음하여 새로운 주소록을 만들어 냈어요. 나 하나 고생해서 여러 사람 편하면 그 또한 할 만하다는 주의지요.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연락합니다. 최근에야 기간사를 넘겼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요?

첫 번째 난관은 남편 반대였어요. 시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남편은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박사를 한다 하니 공부하고 박사 후에 상용하는 직장을 갖게 되면 애 키우기 힘들다며 매일 저녁 설전을 벌였지요.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밥 먹고 다시 공부하려 실험실에 갔지만 저는 집에서 애를 재워 놓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중간에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만두라 할까 봐 이를 악물고 했던 것이지요.

원더우먼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면서 제 스스로에 타협했어요. 처음에는 일, 아내, 애 키우는 것 세 가지를 모두 잘하겠다고 선언했

지만 이제는 평균 80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가는 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딸을 엄하게 키워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끝내 헤치고 혁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능력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지요.

교육은 남녀가 동등하게 받지만 결혼하면 남녀에게 상하의 권력관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 힘들게 살지요. 대학, 취직의 관문을 지나는 게 너무 힘들고, 애 키우고 회사를 다니는 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티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많은 여자들이 그래 왔고, 나뿐 아니라 많은 여성이 그렇게 살아왔다. 인간의 라이프 중 개인적인 일과 사회적인 일. 이것 은 하나만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듀얼로 가야 하는 일이다. 대학까지는 나 하나만 건사하면 되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도 다져야 하고 정신력도 무장해야 한다. 작정하면 다 할 수 있다. 일도 집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의 팁을 준다면, 연애할 때 가끔씩 남자 친구랑 미래에 대해 반드시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구체적으로 너는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니?’ 이를 교환하고 은연중에 서로에게 심어 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조를 받고 내조도 해야 합니다. 커리어를 갖고 성공하려면 남편의 지지나 도움이 없이는 힘듭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미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나중에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미래가 겹치지 않으면 차라리 빨리 헤어지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이지요.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은 맞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가장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지요. 남들이 볼 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알지요. 내가 언제 나태했고, 게을렀고, 언제 비겁했냐를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채찍이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내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고 싶습니다.

김정미 동창의 비전은 베트올을 천년 기업으로 길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82학번 이공계 여성으로서 전공을 버리지 않고, 전공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자신이 생산한 한국 제품으로 이름을 알리고, 또 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나라에 도움이 되는 멋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이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항상 설레면서 궁금해 합니다.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궁금증이 저로 하여금 계속 일을 하게 하지요. 그때그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선택과 기회가 생기더군요, 전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갈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워요.”

글 · 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제4회 ‘빛나는 이화인’ 상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201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빛나는 이화인’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빛나는 이화인’상은 현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화 정신에 입각한 선도적 행동으로 타의 모범을 보이고 탁월한 역량으로 사회에 공헌한 동창들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는 이화인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귀하를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인으로 위촉하오니 아래 시상 요강을 참조하여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33주년 기념일인 2019년 5월 31일(금) ‘동창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제4회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 후보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시상내용 상패

■ 수상 후보 자격 과학, 경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이화의 진선미 정신에 입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업적으로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이화여자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2018년 현재 현직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는 본회의 회원

■ 추천인 자격 각 과(학부), 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장

국내 및 해외 지회장

전문직 동창클럽 회장

동창 100인 이상(연명 날인)

■ 구비 서류 추천 사유 및 후보자 업적사항 진술서 1통(본회 소정양식)

후보자 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1장 포함)

후보자 업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타 필요 서류

■ 접수 기간 2019년 1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 우편 접수는 1월 25일(금)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우 03760)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주요 증빙자료는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동창의 필수품 「이화가족카드」

모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동창, 모교에서 친구를 만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이화에서만 구입 가능한 특색 있는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은 동창이라면 지금 당장 발급받아야 할 카드가 있다. 바로 ‘이화가족카드’. 모교 방문 시 이 카드를 지참하면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단 도서 대여는 불가), 교내 ECC에 입점한 여러 업체와 교내 기관 및 외부 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화가족카드는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http://www.ewhaalum.or.kr/>) 상단에 있는 ‘동창 등록’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대외협력처 사이트의 ‘응답하라 이화동창’ 페이지로 연결된다. 거기서 자신의 간단한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이화가족카드 신청란에 체크를 하여 등록하면 수 주 내에 이화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교 방문 시 이화동창만의 편의와 혜택을 누리고 알뜰한 가정 경제 생활을 원하는 이화동창이라면 지갑 안의 필수품, 이화가족카드의 발급을 권한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신청 방법

- 동창 등록 → 응답하라 이화동창 → 필수 정보 입력 + 이화가족카드 신청 체크 후 응답완료 클릭
※ 이화가족카드 수령까지 3~4주 소요되며, '응답하라 이화동창'을 통해 입력한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 이용 기간: 준영구
- 신청 대상: 이화동창
- 문의처: 대외협력처(☎ 02-3277-2926, ewha21@ewha.ac.kr)

■ 사용 가능한 곳

- ECC 및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숍
 - 케세이호(중식당), 링코(문구용품): 할인율 10%
 - 구내 안경점, E-FEEL, 생활협동조합 기념품숍, 닥터로빈: 할인율 5%
- 생활환경관
 - 이화인나눔가게: 할인율 10%
- 자연사박물관
 - 도예연구소: 할인율 10%
- 중앙도서관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출입 가능. 단 ECC 열람실은 출입할 수 없다.
 - 도서 대여는 중앙도서관을 통해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 문용자 동창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루어 낸 기적의 의료 선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80여 년, 현역 의사이자 비영리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인 문 용자(의학 62) 동창의 사역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8월 13일부터 평양과학기술대 총장 특별 초청으로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

단 의료전문팀의 방북에 앞서 사전 점검과 협의를 위해 방문한 것이지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는 첫 방북자가 된 문용자 동창은 의료계의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내과의사이면서도 서울시 여성 시의원이라는 정치적 경험을 통해 폭넓은 사회 활동을 해왔던 문용자 동창의 북한의료사업은 2007년 그린닥터스 공동대표를 맡으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소망교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담임목사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강조하셨는데 나진 선봉의 탁아소와 유치원, 고아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고, 평양과기대 설립을 위한 헌금을 하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문 동창은 그린닥터스 공동대표로 개성공단 개성남북협력 진료를 맡아 개성을 오가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에 관여했다. 하지만 2010년 남북 관계가 단절되며 북한의료사업도 맥이 끊기고 말았다. 문 동창을 비롯한 뜻 있는 의료계 인사들은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 협력을 통해 단절된 남북 관계를 돌파할 화해의 불씨가 되기를 염원하며 2015년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을 설립했다. 문 동창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다.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재단은 평양과기대 의학부(의과대학원 과정) 설립 등 북한의 공중보건의료의 핵심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남북한 공중보건의료 인력의 교류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탈북 의료인 지원, 멘토링 사업, 통일 보건의료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지난 8월 북한 방문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문용자 이사장과 재단이사인 윤상권 동북아재단 행정위원장, 전영구 한미약품 고문이 함께한 3박4일의 여정이었다.

“평양에서는 평양과기대를 방문하여 의과대학생들이 교실로 쓰고 있는 건물을 직접 살펴보고, 북한의 의료시설인 평양산원과 안과 등 북한 의료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서 보니 지금 평양과기대에서 의대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 내 IT 건물은 설립된 지 10년이다 되어서 옥상에서 물이 새는 등 노후한 상태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저는 이 대학이 남북의 공동기금으로 창립된 만큼 반드시 ‘건강한 남북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00년 이후 남북 공동 협력체사업 세 가지 중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이 다 중단되었지만 유일하게 이 평양과기대 만큼은 이렇게라도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광선희 이사장님, 김진경 초대 총장님께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렸어요.”

그는 향후 방문 예정인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곳의 학생들에게 ‘북녘 땅에 발을 붙이고 굳게 서 있지만 두 눈만은 전 세계를 바라보라. DARE TO COMPETE’라고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방북 단체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문용자 동창은 나이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견고한 신앙이 그의 생을 험난한 도전과 응전으로 이끌었다. 기도로 무장하고 주저 없이 길을 나서는 문동창의 마음은 항상 청년이다.



2018년 평양산원 방문

전 세계를 무대로 봉사하며 살겠다는 소명을 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용자 동창은
1937년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태생이다.

“일본에 유학하여 경제학과 경영 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와 사업을 벌인 아버지 덕에 500평 대궐 같은 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시골에서 땔만 넷을 내리 넣았던 문동창의 어머니는 맘고생이 여간 크지 않았다. “아들 없는 죄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제가 아들 노릇을 하리라 공공연히 큰소리쳤지요. 어머니는 그러한 저를 평생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문동창의 어머니는 호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어느 날 여덟 살의 문동창은 이성봉 목사의 부흥회에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너무 어려 예배당에 들여보내 주지 않았지만



회갑연에서 가족들과

그는 몰래 예배당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알 수 없는 감동으로 계속 눈물이 났지요. 어린 아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불러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봉사하며 살 것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세계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문 동창의 행복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6·25 전쟁을 겪으며 참혹함으로 반전된다. 낙동강 전투를 피해 한 달을 피신하고 돌아온 집은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사춘기 때였다. 그러나 문 동창은 이미 여덟 살 때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굳건한 신앙이었다. 늘 지

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집안일도 나서서 도왔다.

문 동창은 어려서부터 전문직을 가져야 끝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로 진로를 정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중학교 때 대구의 병원에 치료차 갔다가 환자를 진료하는 여의사의 모습에 매료되었던 것. “바로 이거다 했지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변 어른들은 초등학교 선생이나 약사, 간호사가 되라며 만류했지만 문 동창은 의지를 꺾지 않고 끝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세브란스로 가려 했던 저를 어머니는 예수 믿고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인 이화여대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대를 갔지요.” 김활란 총장은 낙동강 시골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하셨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이 학교는 예수 믿고 예배 보는 학교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없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버지에게 아들 노릇 하려고 왔습니다.” 김활란 총장

은 기특하다며 한미재단 장학금을 주선해 주었다.

학교에 다니며 문 동창은 김활란 총장의 <직업과 여성>이라는 강의를 통해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의대 6년 과정과 이후로 긴 인생길을 가는 동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이화의대 본과 3년 11회 동기들과(아래) 의대 학위증(오른쪽)



걸음 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한다.

2016년 모교 의대 선정 에스더 상 받아

문용자 동창의 도전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의대를 졸업한 후 그 당시 각광받던 국립의료원 인턴과 내과 전공의 과정을 밟으며 결혼하여 4남매를 낳았다. 서울대학교 의대대학원을 졸업하고, 성도의원 원장으로 시작한 문동창의 커리어는 현대병원, 종합병원인 지성병원 원장으로 이어졌고, 1997년 서울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여성의 섬세함과 의사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했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정회 홍보 이사, 서울시 강남구의사회장, 그린닥터스 상임공동대표 등 수많은 단체의 리더와 매주 헌신적인 교회봉사, 라오스, 필리핀, 네팔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의 해외 선교활동, 대북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무대로 그의 활동이 펼쳐졌다.

문동창의 의료를 통한 봉사와 실천은 모교 의대가 수여하는 2016년 에스더 상수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온 문동창의 삶의 궤적들은 순종했기에 힘겨웠지만 순종했기에 이루어낸 것들이었다. 자신의 유희와 안락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왔기에 편안하지 않았고 언제나 동분서주하며 움직였어야 했다.

문동창은 무시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의 생이 의미 있었다. 문동창은 지금도 성경을 매일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화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화여대가 세계적인 학교가 되고 이대병원이 세계적인 병



서울그린닥터스 의료진들(위) 한센인 무료진료 봉사(아래)

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은퇴자들을 위한 여유로운 삶을 위한 공간인 시니어스 타워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에게는 아직도 본인에게 허락할 여유는 없는 모양이다. 여전히 바쁘다. 의료법인 한울요양병원 내과과장으로 진료하며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재단사무실에도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다

소망교회 설립과 성장에 기여했던 문동창은 요즘 소망교회 대신 작은 동네 교회에 다닌다.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 모르게 십일조를 해야 교회에 도움이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탕으로 그만의 방식으로 온 세계를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온 문용자 동창의 발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차별화된 한국어 교수법과 강사진, 우수한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요즘, 날로 높아가는 한국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곳, 모교 언어교육원(Ewha Language Center, 원장 심소희·중문 87)을 찾았다.

이곳을 찾기 얼마 전인 7월 초 언어교육원이 ‘미국 국무부 청소년 초청사업 한국어 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7월 2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실시)’는 뉴스를 접했다. 무엇보다 모교의 기관이 한국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뿌듯함이 앞섰다. 이곳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모교를 찾은 외국인 언어 연수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 등 대외 활동 분야에까지 걸쳐 있다는 것도 반가웠다. 정보를 알아갈수록, 언어교육원만의 특별한 한국어 교수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간 50개국 4,500여 명의 학생들이 등록

언어교육원은 1962년 모교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부속 어학교육기관으로 출발했다. 그 후 1988년부터는 주로 남녀 일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시작,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거듭해,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언어교육원 김미숙(초교 85) 부원장은 “예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타이완, 홍콩, 일본 학생들과 유럽 및 미주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한국어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지요. 매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우리 교육원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말의 세계화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 등지를 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와 모교 학생들의 제2외국어를 담당하는 외국어교육부, 그리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교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과 일반 언어연수생까지 합하면 연간 50개국 4,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교육부의 수업을 받고 있다. 여기에 외국어교육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까지 합하면 매년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언어교육원에서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어교육부에서는 일반 한국어 연수생이나 한국으로의 유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집중과정(1년에 4학기 운영, 매 학기 10주/총 200시간)과 방학이나 휴가 등 짧은 기간 한국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한국어 핵심 교육을 실시하는 단기과정(1년에 7회 운영, 매회 15일/총 60시간)이 운영된다. 집중과정에 등록한 어학연수생들은 말하기 대회,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 방과후 활동, 한국어도우미 활동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 국무부 청소년 초청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특히 눈에 띠는 것이 한국어 특별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외국 대학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맞춤 형태로 개설하는 한국어 위탁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이 있다. 앞서 소개한 ‘미국 국무부 청소년 초청사업 한국어교육’이나 지난 6월 13일(수)부터 7월 18일(수)에 실시된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도 이런 위탁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이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부의 배재원(사학 91) 특임교수는 언어교육원이 정규 어학연수 과정 외에도 대외적으로 여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청소년이 주목해야 할 언어를 선정해 해당 언어의 종주국으로 학생을 파견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나라는 우리 한국이었고 그 언어를 가르치는 임무가 본 교육원에게 맡겨진 것이었죠. 교육원은 그 사업을 담당한 정부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사업을 당당히 따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4개국에서 온 28명의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던 ‘C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어학연수’ 역시 언어교육원이 국립국어원이 모집하는 국고지원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공개입찰을 거쳐 온 사업이다. 외국어교육부는 주로 모교 학생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내 언어교육원 로비



미국 국무부 청소년 초청사업 한국어 교육 개강식



OIS 지역 한국어교사 초청 연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미국 청소년들

된 한국어 교수법이 무엇인지 문자, 배 특임교수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말하기 중심의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1-6급의 『이화 한국어』라는 전용교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역시 문법 드릴(반복연습)이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 말하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또한 한국어 교사들의 재교육과 워크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사분들이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지만 본 교육원에 맞는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습득하는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런 재교육과정과 끊임없는 연구 및 자료개발 등이 우리 교육원만의 차별화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양적인 면을 내세운다면 우리 언어교육원은 관리 시스템이나 세밀한 교육과정 면에서 그들보다 질적으로 월등

대상으로 대학원 영어특강, 일대일 튜터링, 제2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대학원 영어특강이 활성화되어 있다.

동창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997년부터 시작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동창들의 참여도가 높은 과정 중 하나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120시간의 강의를 수료하면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미숙 부원장은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는 한글학교 같은 해외 한국어교원으로 파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동창들의 문의도 많고 이 과정을 수료하고 가는 동창들도 꽤 있는 편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120시간 안에 광범위한 내용을 배워야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어서 중도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교 동창, 교직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20%의 수업료 감면 혜택도 있어 동창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타이 최초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 참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통한다. 그 만큼 가르치기도 쉽지 않으리라. 모교 언어교육원만의 특화된 한국어 교수법이 무엇인지 문자, 배 특임교수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말하기 중심의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1-6급의 『이화 한국어』라는 전용교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역시 문법 드릴(반복연습)이 아니라 의사소통 중심, 말하기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또한 한국어 교사들의 재교육과 워크숍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사분들이 모두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지만 본 교육원에 맞는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습득하는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런 재교육과정과 끊임없는 연구 및 자료개발 등이 우리 교육원만의 차별화된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양적인 면을 내세운다면 우리 언어교육원은 관리 시스템이나 세밀한 교육과정 면에서 그들보다 질적으로 월등

히 앞서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교재 『이화 한국어』,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등은 이화여대출판문화원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어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인기 교재다. 특히 중국어 버전은 베이징어와 광동어 판을 따로 제작해 언어교육원에 홍콩과 타이완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언어교육원은 2017년 10월 발간된 타이 최초의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타이 고등학교 교과 중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면서 『이화 한국어』가 교재로 선정된 것이다. 그만큼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재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계획중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만의 또 한 가지 자랑이라면 다른 언어 교육기관에 비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입학한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반 편성이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한 반 15명 중 적어도 8~10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滿이 꾸려진다. 학생 본인들에게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질 좋은 교육과정과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수료생들이 많아요.” 그런 메일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배 특임교수는 “사실 집중과정 1학기만 받고 가려고 했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 한국어에 끝 빠져 결국 6학기까지 졸업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졸업 뒤 인생 자체가 바뀌어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지요”라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살짝 소개했다.

올해 12월 말에는 30주년 기념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다. 매년 어학연수생 대상으로 치러지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이번에 좀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에 있는 동창의 자녀 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를 원하거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관심이 많은 동창이라면 언어교육원 홈페이지(<http://elc.ewha.a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3277-6958)로 문의하면 자세한 교육과정과 동창들만의 수업료 할인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17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17년 안동하회마을에서



2016년 한국어 집중과정 수료식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장 4~5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아야 할 모든 징벌, 고통, 아픔, 수치를 직접 받으셔서,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용서와 축복을 받으며 모든

수치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수고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청년의 삶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무노입니다. 그는 2006년 16세 때 저희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랐으며, 우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같이 살던 남자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가 느꼈던 그 수치심은 저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성장하여

2013년에 결혼하고 이번 봄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음 주에 타이완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청년은 윤드코입니다. 2010년경부터 우리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그를 돌보지 않으셔서 할머니와 살아 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늘 자신감이 없고 여자 친구들과도 관계가 쉽지 않아 결혼 전에 깨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돋기를 즐겨하고 교회에도 기쁘게 가진 것을 나누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을 찾아 기



도하던 중 몇 년 전부터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믿음이 신실한 자매를 만나 작년에 가정을 이루어 이번 봄에 첫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그의 삶이 더욱 안정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진의 주인공들은 이번 달에 있었던 청소년 제자훈련학생들입니다.

온혜 가운데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성령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희 심령에 새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 모두 많이 울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어떤 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입장이며, 어떤 이는 아버지의 음주 폭행으로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죄의 결과로 깨어지고 상처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지고, 그 상황은 우리를 무력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절망, 아픔, 고통, 수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위로와 치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며 이 기적의 복음을 숨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픔, 미움, 공포, 분노, 수치가 가득하였던 자들이 평안, 기쁨, 용서, 소망, 믿음,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로 두 청년의 삶이 희망과 축복의 삶으로 변한 것처럼, 사진 속의 아이들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속의 몇 명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없거나 부족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동역자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몽골 형제자매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내몽골에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저희들의 안전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그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글·김경수(영문 81)

♥ 기도해 주세요 ♥

1. 중국에서의 안전과 예비하신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
2.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그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자연대학

회장 __ 최은영(물리 87)

아유회 개최안내

10월 15일(월) 파주(마장호수, 벽초지수목원, 보광사)에서 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이는 시간은 오전 9시이고, 장소는 압구정역 6번 출구 앞이다. 참여를 원하는 동창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에 참석한 음대 동창들

일환으로 6월 4일(월) 오후 7시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서 졸업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음악회에서 각 과 올해의 이화인(1988년 졸업)들은 아름다운 예술을 마음껏 보여 주며 많은 동창들과 기쁨을 나누었다.

7월 6일(금) 12시에 SICTAC에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 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선교사 후원에 관한 논의와 동창회 장학금, 9월 바자회 물품 선정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승현 학장이 음악대학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였고, 임진 회장은 임원들에게 모교를 위해 모든 동창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고 격려하였다. 또한 임진 회장은 '김영의 추모음악회'를 제안하여 이화여대 음악대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유구한 역사의 산실을 보여 주자고 하였다.

8월 23일(목) 음악대학 316호에서 윤승현 학장

음악대학

회장 __ 임진(작곡 72)

김영의 추모음악회 준비위원회 결성

음악대학 동창회는 2018 이화뮤직페스티벌의

을 비롯하여 각 과 학과장, 임진 회장, 음악연구소장 등으로 이루어진 '김영의 추모음악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들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 음악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음악대학 동창회는 미래의 이화여대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조형예술대학

회장_봉지희(섬예 85)

녹미회 신·구 합창단원 모임

7월 27일(금) 문화정원 아트홀에서 녹미회(조형예술대) 합창단의 신·구 합창단원 모임이 있었다. 5월 31일(목) 모교 대강당에서 132주년 동창의 날 합창제를 함께한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원들은 서양화과 동창회장 조기련(서양 83) 동창이 설계한 문화정원 아트홀에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합창제 뒤풀이 파티를 즐겼다. 주제에 걸맞은 드레스 시상, 뷔페 식사, 유통과 노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섬예과,



합창제 뒤풀이 파티 모임을 가진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합창단원들

생미과, 장미과, 도예과 등 합창단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즐거운 소통의 자리로, 신입 합창단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다가오는 133주년 합창제 준비를 위한 방향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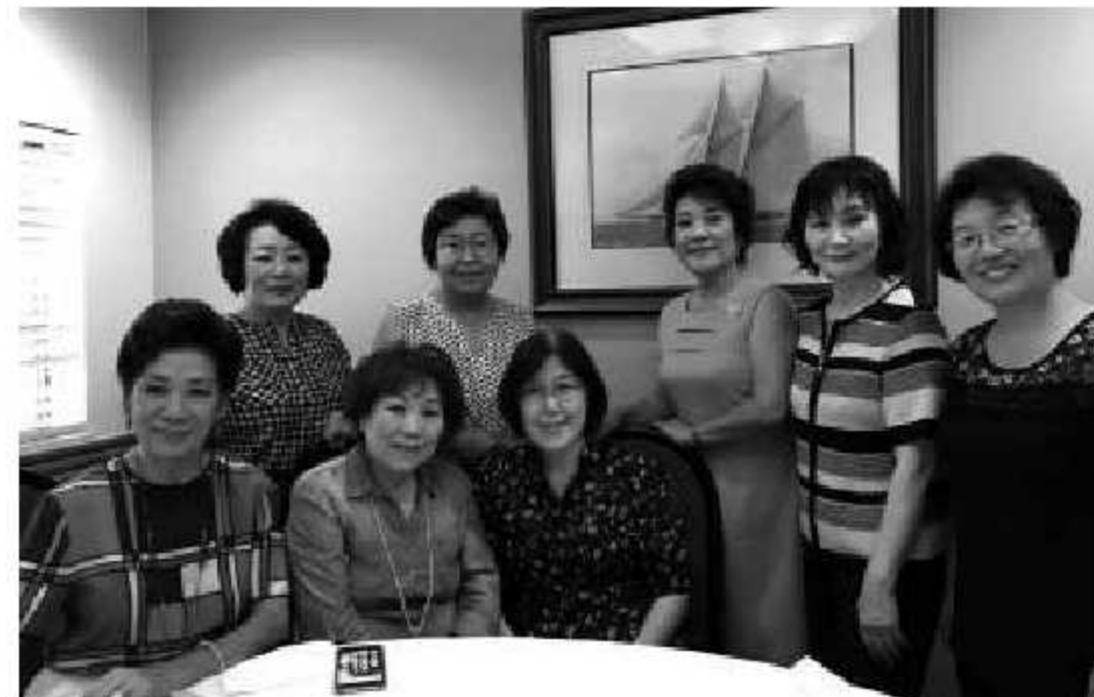
간호대학

회장_임경희(간호 80)

남가주 동창들과의 만남의 자리

임경희 회장은 7월 31일(화) LA에서 미국 남가주에 거주하는 동창들을 만나 여러 가지 모교의 현안과 함께 간호대학 건축기금현황과 이화의료원 소식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동창은 남가주 간호대학 동창회장인 안영숙(간호 74) 동창을 비롯하여 양정남(간호 60)·박화자(간호 66)·김혜숙(간호 72)·조인서(간호 72)·김성실(간호 75)·김정순(간호 75) 동창 등 7명으로, 재학 당시의 교수님들의 근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식을 나누었다. 남가주에는 35명의 간호대학 동창이 거주하는데 1년에 2회(1월 신년 모임, 6월 피크닉)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남가주 동문 합창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동창



반시계방향으로 맨 앞줄부터, 양정남·박화자·임경희·김성실·김정순·안영숙·조인서·김혜숙 동창

들의 환한 얼굴을 대하면서 이화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약학대학

회장_이미애(약학 79)

'화합의 날' 행사 개최

3월 6일(화) 오전 11시 약대 글로벌실에서 주홍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주홍장학회 위원장 정준순(약학 72) 동창은 김찬영(6학년)·강소영(5학년)·임나현(4학년)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3월 7일(수) 오전 11시 5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삼동 루안에서 정기 임원회 및 기 대표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하현주(약학 81) 학장 인사말이 있었으며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소 후원회 경과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고 기 대표들이 각 기의 근황을 발표하였다.

3월 13일(화)과 4월 10일(화) 각각 오전 11시 선교예배를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가졌다.

4월 17일(금) 강혜식(약학 62) 동창이 원장으로 있는 파주시 광탄면 소재 정원노인요양원을 방문하였다. 모두 70여 명의 동창과 공연단이 참석하였고 450만 원을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까투리 무용단의 한국 고전무용, 성악, 벨리 댄스, 약대 합창단의 노래 등 위문공연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4월 24일(화) 서울숲에서 열린 제37회 화합의 날 행사에 총 191명의 동창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다. 올해 졸업 40주년이 되는 동창(약학 78)들



4월 24일(화) 서울숲에서 열린 '화합의 날'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

이 김밥 등 점심을 준비하였고, 동창회에서는 기념타월, 화장품, 영양제 등의 선물을 준비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주었다.

5월 19일(토) ECC 이삼봉홀에서 39회 동창들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5월 31일(목)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동창의 날 합창제에 43명의 합창단원이 참석해 <홀로아리랑>으로 이화상(1등상)을 수상하였다.

6월 12일(화), 7월 10일(화), 8월 14일(화) 각각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선교부 주관으로 월례예배를 가졌다.

6월 19일(화) 역삼동에 있는 루안(중식당)에서 19회(약학 68) 동창들의 졸업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6월 21일(수)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한향림 옹기박물관에서 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말이 있었으며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소 후원회 경과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8월 10일(금) 36호 약대 동창회 소식지를 3,000여 명의 약대 동창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미애 회장 인사말, 하현주 학장 인사말, 총동창회 소식, 약대 소식, 동창 소식, 회무보고, 김원숙(약학

57) 고문 인터뷰, 각 기 동정, 약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였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최인순(의직 79)

졸업 50주년 축하 행사 개최

생활환경대학(구 가정대학) 동창회 '아령회'는 6월 21일(목) 아령당에서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초청하여 감사와 축하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30여 명과 각 과 임원진, 여러 후배 동창들 60여 명이 함께했다. 감사와 축하의 뜻으로 피아니스트 이은경(가관 83) 동창, 오보이스트 김수진 씨의 멋진



아령당 앞에 모인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클래식 축하 공연, 찬양사역자 박미경(의직 76) 동창의 멋진 독창이 있었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싱어롱 시간도 가졌다.

동창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였으며, 생활환경대 동창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랑, 서로의 친목과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과(학부) 순서로 게재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회장_김혜정(72)

서촌 한옥마을 탐방과 춘계 강좌

4월 19일(목) 영학회의 임원들과 기간사 26명이 서촌 한옥마을 돌아보기에 나섰다. 지난해의 북촌과 경복궁에 이어 우리 문화 바로 알기 제3탄이

다.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은 청운동 및 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를 아우르며, 겨재 정선, 추사 김정희, 청전 이상범, 시인 윤동주와 이상 등 예술가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상촌재에서 시작해 사직단까지 구석구석 골목길을 돌아보며 뜻 깊고 즐거운 봄날의 한 때를 만끽했다.



서촌 한옥마을 탐방을 함께한 영문과 동창들



독문과 과방에서 남재은 동창이 최지영 학과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좌측은 재학생과 졸업생 대표

5월 1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오이디푸스에게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모교 영문과 강태경 교수에게 인상 깊은 강의를 들었다. 강태경 교수의 완벽한 강의자료 준비도 훌륭했지만 강의를 할 때의 그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동창들은 마치 그 옛날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해 했다. 강의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간단히 영학회 총회를 마치고 동창들과 즐겁게 담소를 즐기며 점심식사를 했다. 따뜻한 봄날, 모처럼의 모교 나들이와 동창들과의 만남이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은 총동창회가 마련한 졸업 50주년 기념 연회와 독문과 동창회가 준비한 선물 및 행사를 치하하였다.

지난 5월 31일(목) 총동창회가 마련한 오찬에 참석하기 전 2회 졸업생(1968년 졸업)들은 학관에 위치한 독일어권 문화연구소와 독문과 과방을 방문하여 동창회 기부금의 일부를 금일봉으로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2회 졸업생들과 최지영(독문 87) 학과장, 진일상 교수, 재학생 대표 및 졸업생 대표, 동창회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조소과

회장_나진숙(84)

독어독문학과

회장_이봉무(72)

2회 졸업생들 금일봉 전달

6월 22일(금) 강남호텔에서 동창회 임원단 및 기간사 모임이 있었다. 민용자(67) 고문은 강명신(67) 동창의 근황과 함께 개인전에 성원을 보내준 동창회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또 남재은(68) 고문

동창들의 활발한 전시회 소식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2018년 여름에도 조소과 동창회에는 동창들의 반가운 전시 소식이 전해졌다. 최승애(85)·김지희(87)·호해란(88)·김윤경(93) 동창의 전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으며, 석조와 테라코타를 비롯해서 종이와 패브릭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는 조형 작품으로 동시대 관람자들에게 조소 작품의 다양성을 선보이며 관심과 감

동을 유도하였다.

또한 '2018 이천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천조각회 회장 김영란(79) 동창은 국내외 영향력 있는 조각가들의 작품을 총 감독하여 'Sculpture, creating the dream'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목받았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이화조각회 정기전 준비 및 다양한 동창들의 전시 소식도 기대하고 있다.

유미술의 위상전, 현대 섬유 매체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하고 있다.

또한 현수회 회원인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 장인 김혜순(66) 동창의 매듭 작품과 함께 현대 자수 작품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 3층 전시실에서 8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전시했다.

섬유예술과

회장 이상미(88)

제15회 현수회 회원전 '매듭과 자수'

섬유예술과 선후배 동창들의 모임인 현수회가 15회 회원전을 열었다. '매듭과 자수'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되는 앵콜전이었다. 현수회는 1984년 창립된 한국의 섬유 미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예술원 회원 등의 원로부터 30~40대의 작품 활동을 하는 섬유작가와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1984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비엔날레 형식의 정기전과 국제 섬유 미술 교류전, 한일 섬유 교류전, 아시아 현대 섬

의류직물학과

회장 권혜정(84)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친목 나눠

의류직물학과 동창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탐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회 10~15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6월 26일(화)에는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7월 25일(수)에는 삼청동 현대화랑의 민화 전시 및 백인제 가옥 탐방, 8월 22일(수)에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전시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의류직물학과 동창회의 문화탐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바란다.



제15회 현수회 회원전을 개최한 섬예과 동창들



백인제 가옥을 방문한 의직과 동창들

2018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한 해를 아름답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싶은 이화인들을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은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동창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보내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밤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켓은 각 대학(원), 과(학부) 동창회에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후 6시

장소 :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

(지하로 오실 경우 파르나스몰 내 연결 엘리베이터 이용)

※ 행사 당일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 15만 원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 02-3277-3386~7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회장_이보경(생미 80)

할리우드볼에서 한여름밤의 정취 즐겨

6월 30일(토) 엔젤리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외 음악당 ‘할리우드볼’로 나들이를 갔다. 1만 7,000 명을 수용하는 LA의 명소 ‘할리우드볼’은 피크닉 바구니에 음식을 준비해 여름밤 별빛 아래 와인을 마시며 LA Phil의 음악을 즐기는 낭만적인 전통으로 유명하다.

이 행사를 위해 남가주 지회 동창회에서는 도시락, 와인, 8가지의 홈메이드 섬머 샐러드 등 맛난 피크닉 음식을 준비하여 73명의 동창 참석자들을 행복하게 했다. 뮤지컬 영화인 <그리스>를 즐기기 위해 60년대 복장으로 단장하고 나타난 동창들이 여럿 있어 큰 웃음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중 베스트 드레서 3명을 뽑아 상품을 수여했다. 이날 <그리스>에 출연했던 록 그룹 샤나나가 영화 삽입곡을 불러 참석한 동창들은 모두 <Love Potion No. 9> 등 히트곡을 따라 부르고 춤도 추면서 한여름밤의 향연을 즐겼다.

7월 16일(월) Buena Park에

있는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제13회 총장배 골프 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대회에는 이화동창 외에도 서울대·고려대·한양대 동창회장 및 회원들을 비롯 숙명여대 동창 골프팀이 참가해 대학 간의 친목을 나누었고 후원자 등 148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체대 동창 모임인 한국 건미회 회장 박경실(체육 78) 동창이 이 대회만을 목적으로 일부러 한국에서 와서 후원금을 기부해 큰 격려를 받았다.

2부에서는 게임과 래플 추첨으로 풍성한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날 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금은 연말 송년회에서 대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를 위해 헌신한 골프부(회장 나은숙·의직 85) 임원들과 동창회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표를 표한다.



골프 대회에 참가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뉴델리 지회

회장_김효선(중문 04)

30년 나이 차이가 무색한 돈독한 관계 자랑

뉴델리 지회는 각자의 삶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운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69학번 대선배부터 01학번 후배까지 무려 30여 년의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며, 현재 69학번 김정미(교공 73) 동창 이하 약 14명의 선후배들이 활동하면서 타지 생활 중에서도 서로를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다.

5월 21일(월)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빌리 칸 마켓의 ‘스모크 하우스’에서 브런치 모임을 열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마침 신입 회원 김영란(무용 96) 동창의 첫 동창회 참석 날이라 모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다. 뉴델리 지회는 더 많은 동창들이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개최하는 뉴델리 지회

뉴욕 지회

회장_강혜경(영문 83)

광복절 기념 피크닉 모임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뉴저지 주에 소재한 한



피크닉 모임을 가진 뉴욕 지회 동창들

공원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26명의 동창들과 가족이 야외에서 함께 모여 점심을 나누고 학창 시절을 생각하며 보물찾기도 하였다. 또한 11월에 토론토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합창 연습도 함께했다. 참석자 중에서 최고 선배는 1950년도에 이화를 졸업한 선배들이었는데 후배들에게 모교 사랑의 귀감이 되어 주었다. 참석자들 모두 선후배 간의 사랑을 나누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9월 10일(월)에 맨해튼에서 있을 정기 모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즐겁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멜버른 지회

회장_박혜진(독문 97)

화기애애한 점심 모임

7월 28일(토) 멜버른의 추운 겨울날이 한창 이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햇살이 따사로웠던 7월의 한 토요일에 11명의 동창들이 만나서 마운트 웨이벌리의 한식당 다올에서 점심 식사 모임을 가

졌다.

화기애애하고 유난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색 이자 자랑거리인 멤버른 동창들은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날 오윤미(피아노 04) 동창이 본인이 속한 자선단체의 9월 콘서트 소식을 전하여 다음 9월 모임을 기약했다.



3월 신년 모임에 참가한 보스턴 지회 동창들



점심 식사 모임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낸 멤버른 지회 동창들

칼리지의 호수를 산책하며 선후배 간의 화기애애한 대화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김경애 동창 집에서 커피 타임과 함께 이문희(작곡 77) 동창의 지도로 노래 연습을 하였다. 8월에는 이화 가족 피크닉을 위하여 Auburndale 공원에 모여, 게임과 함께 맛있는 바비큐와 반찬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장학금 마련을 위해 꿀 바자회를 열심히 했으며, 이대 보스턴 동창회 아웃리치프로그램을 시작하여 Community의 어려운 가정이나 여성, 어린이들을 돋기 위한 봉사를 계획 중이다. 동창회는 법률, 교육, 의료 등에 전문직으로 재직 중이거나 은퇴한 동창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연결해 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보스턴 지회

회장_김지영(교육 82)

친교를 나누며 다양한 봉사를 모색

3월 새 봄을 맞이하여 보스턴 지회에서는 신년 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회장 김지영, 부회장 신은경·법학 88, 회계 강정림·교육 85)과 이사장(이혜원·약학 70)을 임명하였다. 고문(김경애·의학 70)도 한 명 더 임명하였고,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신년 모임에서는 총회 이후 빙고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팀으로 나누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선교 담요를 만들었다.

4월에는 페인팅 파티를 통해서 작품을 붓으로 칠해 보는 화가가 되기도 했고, 6월에는 웨슬리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곽정연(독문 76)

칠월칠석날 정기 모임을 가져

6월 2일(토) 정오, Milpitas에 위치한 한식당 '장수장'에서 34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중요 공지 사항으로 11월 1일



칠월칠석날 과정연 회장의 집에 모인 북미주 지회 동창들

(목)부터 4일(일)까지 토론토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및 이화국제재단 총회에 대한 안내, 그리고 관광 스케줄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신청을 해 달라는 과정연 회장의 부탁도 있었다.

7월 7일(토) 정오, Hillsborough에 소재한 과정연 회장 집에서 48명의 동창들과 정기 모임을 함께했다. 특히 이날은 견우직녀가 만난다는 칠월칠석날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이 많았다.

과정연 회장이 준비한 고등어, 갈비 바비큐와 여러 종류의 푸짐한 과일, 채소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점심 식사를 시작으로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 반갑고 귀중한 시간을 나누었다. 이어 토론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는 동창들의 신청서를 모두 함께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8월 4일(토) 정오, Oakland에 있는 한식당 '오가네'에서 21명의 동창들이 모여 오붓한 정기 모임을 가졌다. 다른 달에 비해 적은 인원이었으나 보다 가족 같은 정겹고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공지사항으로는 9월 22일(토)에 개최될 장학 후원을 위한 동창회 골프대회에 대한 공지와 논의가 있었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_박춘화(경영 86)

낮 모임과 저녁 모임으로 교류나눠

9월 동창회를 조금 앞당겨 8월 30일(목)과 8월 31일(금)에 각각 낮 점심 모임과 직장인 저녁 모임을 가졌다. 낮 모임은 싱가포르 금융업 중심지에 위치한 UOB Plaza의 중식당에서 멋진 전망과 함께 맛난 사천식 요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간의 관계가 더더욱 견고해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낮 모임에는 많은 직장인 동창들이 참석해 주었고, 새로 나온 김소현(법학 86)·박진경(교공 91)·신상명(조소 00)·조빛나(교공 09)·신미영(법학 06) 동창을 환영하고 소개하였다. 끝으로 소모임 반장들의 골프, 트레킹, 암벽, 줌바, 북클럽 홍보 및 활동 상황 보고가 있었다.

저녁 직장인 동창 모임은 SGCC Garden Grill 양식당에서 4코스 식사를 여유롭게 마친 후 2차 노래방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윤영미(경영 95)·이현아(행정 97) 동창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값진 내공들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 모습에 따뜻한 정과 이화인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낮 점심 모임에 참가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

일본 지회

회장_고정희(장미 74)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기도 시간

6월 16일(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일식집에서 정갈한 음식을 나누면서 이화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기도와 함께 일본 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정태영(생미 69) 상임고문의 격려사와 함께 최영숙(체육 69) 동창의 건배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식사 모임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 일본 지회 동창들



7월 모임에 참석한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히 임원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참여하는 동창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그 원인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7월 25일(수)에는 일식집 Shuhei에서 많은 동창이 모여 가슴 뿌듯한 시간을 가졌다. 11월에 토론토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다. 이날은 그동안 회장으로서 여러모로 이화를 위해 애써 주었던 임영미(유교 83) 동창의 생일이어서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모처럼 참석한 동창들이 많아서, 자녀 출산, 결혼, 건강 등 크고 작은 근황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문성애(생미 81)

어르신들 모시고 점심 대접

6월 20일(수) 클리블랜드 Flats의 East Bank에 있는 Alley Cat에서 6명의 동창이 참가한 가운데 동창 모임을 가졌다. 호수와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망 좋은 곳에서 동창들은 지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임 후에는 East Bank Boardwalk를 걸으며 새로운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지연(법학 65) 동창이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나누

토론토 지회

회장_박현주(물리 89)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로 분주한 나날

토론토 동창회는 기존의 다양한 활동들과 11월 있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기도모임인 횃불회가 2월, 4월, 9월에 모임을



벚꽃놀이로 친목을 다진 토론토 지회 동창들

가졌고, 자체 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화음동호회가 예배 음악으로 함께했다. 5월과 6월에는 벚꽃놀이와 야유회로 동창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4월 시작된 성경 공부는 3~4주에 한 번씩 모여 평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토론의 기회가 없었던 주제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했다. 현재 잠깐의 여름 휴식을 마치고 후반기 성경공부 모임(9~11월)이 진행 중이다. 건강과 친목을 두루 챙기는 토요 걷기 모임은 5월부터 8월 까지 활발하게 이뤄졌고, 초록의 계절에 빠질 수 없는 골프 모임이 매월 개최되고 있다.

월례 행사인 선샤인 봉사회의 ‘밀크백 프로젝트’는 버려진 우유백을 실타래처럼 엮어 침대 매트와 가방을 제작, 가난한 나라로 보내는 봉사 활동이다. 이 활동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행사 기간 중 한 차례 워크숍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북미주 각 지회와 총회 행사 소식을 담은 연합회 소식지를 제작해 7월 초 북미 전역 동창들에게 전달했고, 본 행사 준비를 위한 크고 작은 업무에 많은 동창들이 귀한 손을 보태고 있다. 북미주 동창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기 위함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토론토

동창들 역시 소중한 단합을 선물받고 있다.

파리 지회

회장_함미연(불문 81)

봄맞이 이화가족 피크닉 행사

6월 2일(토) 파리 13구에 위치한 Kellerman 공원에서 봄맞이 이화가족 피크닉을 진행하였다. 봄 피크닉은 파리 지회의 주요 연례행사 중 하나로, 프랑스 전역에서 모인 이화동창과 가족이 함께 잠시 삭막한 도심에서 벗어나 녹음 속에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피크닉 장소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파리 근교의 공원이 아닌, 접근성이 높은 파리 시내의 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올해에도 많은 이화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함미연 회장을 중심으로 현·전 임원진들이 해외에서 접하기 힘든 한식 위주로 음식을 정성들여 푸짐하게 준비하였다. 식사 후에는 가족 장기 자랑 및 여러 동창들이 기부한 선물들을 추첨을 통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따뜻한 파리의 봄 날씨와 함께 행사는 성공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함께 교가를 합창하며 봄맞이 이화가족 피크닉을 마무리하였다.



따스한 파리의 봄 날씨와 함께 웃음꽃이 끊이지 않던 파리 지회 동창들

문화(약학 59) 동창

현정회 여성위원장이자 전 17대 국회의원인 문희 동창이 7월 17일(화) 대한민국헌정회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현정회 여성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헌정회 유용태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6월 28일(목)에는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차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 동창

김태련(심리 60) 동창

2018년 6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회장직에 선임되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5회 연임되었다. 또한 김태련 동창은 5월 26일(토)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프렌드십 워크'를 개최하고 25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함께 걸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태련 동창

오용자(생명 64) 동창

7월 2일(월) 전 성신여대 교수 오용자 동창이 2018년도 '느티나무상'을 수상하였다. '느티나무상'은 한국식물학회 및 식물학 발전에 공헌한 우수 원로 학자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경희대 안진홍 교수의 기부로 2014년 제정된 상이다.



오용자 동창

강명신(강신온·독문 67) 동창

6월 13일(수)부터 19일(화)까지 '소란 강명신 개인전'이 경인미술관 제5관에서 열렸다. 강명신 동창은 허백련, 송수남, 한영성 산하 화방에서 동양화를 익혔으며, 2001년『국가상훈 인물대전』, 「현대사의 주역들」 문화예술인 편에 등재되었다. 강 동창은 멕시코, 호주, 서울 뉴 살롱전에서 감사패를 받았고, 도예, 목공예, 의상디자인도 하면서 몽고, 런던, 밀라노 등지에서 국제전을 개최하였다.



강명신 동창

정효정(영문 68) 동창

시인 정효정 동창이 해외문학사와 해외문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20회 해외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해외문학사는 8월 7일(화) 시부문 대상 수상작에 정 동창의 시 「겨울 강」, 「외줄타기」, 「나는 화석으로 피어서」 등 3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동창은 미주한국문인협회와 재미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가산문학상, 허난설헌 시인상, 윤동주 해외작가 우수상 등을 받았다.



정효정 동창

안윤정(독문 69) 동창

여성경제인협회 5대 회장을 역임한 앙스모드 대표 안윤정 동창이 6월 19일(수) 총동창회 선교부에 기부금(의류 101점, 2,597



안윤정 동창

만 2,400원)을 쾌척하였다. 안 동창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창들의 신체 치수를 미리 문의하여 꼭 맞는 앙스모드의 옷을 선물하는 세심한 배려로 받는 사람의 기쁨을 배가시켰다.

서동희(생미 70) 동창

도예가 서동희 동창의 도예전이 서울 광진구 더샵 스타시티에 위치한 바이블 도자예술관에서 9월 27일(목)부터 10월 5일(금)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 서동창은 독일의 도예 전문 학술지인 《NEW CERAMIC》 3, 4월호에 등재된 작품 4점을 비롯해 성경을 모티프로 한 작품을 전시하였다. 서동창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건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김선미(독문 71) 동창

김선미 동창이 2017년 사진진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소환된 기억의 재현'에서 올해의 작가상과 포토폴리오 리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6월 1일(금)부터 30일(토)까지 경남 진주 온갤러리에서 '수상작가 김선미 초대 개인전'이 열렸으며 6월 16일(토)에는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자 및 관객과 유익한 토론을 하였다.



김선미 동창

한경희(장미 72) 동창

6월 20일(수)부터 25일(월)까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2층 제2 전시실에서 '생활 속 우리 가구-한경희 가구전'을 열었다. 옛 가구의 현대화 작업을 공간 디자이너의 에너지로 탄생시킨 전시회였다.



한경희 동창

한영수(과교 72) 동창

한국YWCA연합회장 한영수 동창이 6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 해외 위원장회의'에 참석했다. 만 9년 만에 남북 민간단체들이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민족, 종교 등 분야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한영수 동창은 15명의 남쪽 대표단 가운데 유일한 기독여성 단체 대표로 참여했다.

허영일(무용 72) 동창

7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집행위원장은 맡았다. 전 한예종 교수인 허영일 동창은 제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집행위원장으로 맡아오고 있다.

김경희(물리 73) 동창

6월 28일(목)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현대상' 시상식에서 김경희 동창이 전통문화계승 전통꽃장식부문 명장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현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연예,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단체, 기업, 개인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한다.



김경희 동창

고정희(장미 74) 동창

고정희 동창의 개인전이 일본 도쿄의 아자부주반갤러리에서 6월 20일(수)부터 25일(월)까지 열렸다. 일본 사회와 재일동포 사회에 조선 시대의 민화 홍보를 목적으로 한 개인전으로, 고동창



고정희 동창

은 동경한국학교에서 37년간 미술교사, 교감으로 재직하였다.

김영순(무용 74) 동창

뉴욕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김영순 동창이 창단한 'WHITE WAVE Young Soon Kim Dance Company'가 6월 24일(일)부터 25일(월)까지 맨해튼 딕슨 플레이스 공연장에서 제3회 솔로·듀오 댄스 페스티벌(Solo Duo Dance Festival)을 개최했다. 솔로·듀오 댄스 페스티벌은 기성 및 신진 안무가들과 댄서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에 설립되었다.



김영순 동창

인재근(사회 77) 동창

인재근 동창이 7월 1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 동창은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인재근 동창

김영란(조소 79) 동창

8월 7일(화)부터 20일간 개최된 제2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꿈을 조각하다(Sculpture, creating the dream)'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김영란 동창

박정례(섬예 79) 동창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섬유패션 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정례 동창이 한국섬유미술가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정례 동창



박정례 동창

은 자수공예 분야에서 국제 및 국내대회 경기직종 관련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섬유미술가회 주최로 '제18회 한국 섬유미술 비엔날레'가 9월 3일(월)부터 9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임정희(가관 79) 동창

임정희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밝은청소년과 모교가 공동 주관하고 허들링청소년합창추진위원회(회장 유중근·영문 67)가 주최한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가 7월 28일(토) KBS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9월 초에는 MBC 다큐멘터리로 행사 전 과정이 방영되었다. 이 행사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합창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과 상생·배려의식을 키우는 프로젝트이다.



임정희 동창

최인순(의직 79) 동창

최인순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한국황실문화갤러리가 주관하는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이 8월 8일(수)부터 9월 28일(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근대 황실공예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는 남북화합을 위한 교류전의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최인순 동창

송미숙(간호 80) 동창

9월 1일(토) 아주대의료원 간호대학장에 임명되었다. 송미숙 동창은 아주대 간호대학 간호과학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대외적으로는 광주시, 구리시, 성남시 방



송미숙 동창

문건강관리센터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센터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병주(물리 81) 동창

8월 10일(금) 서울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에 내정되는 수석 부회장으로 민병주 동창이 선출되었다. 민 동창은 9월 1일(토)부터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내년 9월 1일부터 제32대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민 동창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수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민병주 동창

이계영(교육 82) 동창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부교육감 이계영 동창이 6월 27일(수) 한국장학재단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이 동창은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한 후 교육부 정책분석과장,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통일부 통일교육원 개발협력부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이계영 동창

이소희(영문 82) 동창

가죽공예가 이소희 동창은 협동조합 '누군가의 집'에서 7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2018 인사미술대전에 1차 합격하여 7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 갤러리 라메르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김민선(김정배·관현 83) 동창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동창이 학장으로 있는 미국 뉴욕주 소재 종합교육기관인 리즈마재단이 충북 보은에서 8월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리즈마 국제 섬머 페스티벌·캠프'를 개최하였다.



김민선 동창

이 행사는 김 동창이 고향 후배들에게 세계적인 교수들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음악, 댄스, 미술 과목을 일반반과 전공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염춘미(정외 83) 동창

염춘미 동창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7월 1일(일) 부임하였다. 염 동창은 1987년 공단에 입사한 뒤 구미지사장, 본부 감사실장, 홍보실장, 장애인지원실장, 송파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오한숙희(사회 83) 동창

6월 28일(목)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성남시 초빙으로 '성남행복아카데미' 11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여성, 세상을 선택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이 시대를 바꿔가는 여성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졌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동창은 현재 수키앤플레이, 해심터 대표로 활동 중이다.



오한숙희 동창

황미숙(무용 84) 동창

파사무용단 예술감독 황미숙 동창이 9월 9일(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 무대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공연하였다. 2015년도 초연된 이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을 3년 연속으로

받았다. 황 동창은 2006년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였고, 평론가들로부터 ‘한국적 현대무용가’로 찬사를 받고 있다.

김영란(서양 85) 동창

8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전주 교동 미술관에서 ‘2018 전북 나우아트페스티벌’의 기획설치 전 ‘30일의 비닐 일기’를 기획하였다. 6명의 작가들이 30일간 각자의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비닐 포장재들을 채집, 환경 폐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며, 설치 작업으로 업사이클링하는 기획이다. 또한 10월 29일(월)부터 11월 10일(토)까지 전주 숨갤러리에서 ‘품다’라는 주제로 제8회 개인전을 갖는다.



김영란 동창

최승애(조조 85) 동창

7월 3일(화)부터 15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금보성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최승애 동창

고정숙·김은지·박연숙·박연옥·서병진·이무경·이연숙·최혜인·허서령(이상 동양 86) 동창



이화채색화 연구회

동양화과 86학번 동창생들이 만든 이화채색화연구회에서는 6월 2일(토)부터 30일(토)까지 갤러리 향원재에서 개관기념전으로 ‘민화 마음’전을 열었다. 민화의 거장 파인 송규태 선생으로부터 사사받은 박연옥 동창이 중심이 되어 고정숙·김은지·박연숙·서병진·이무경·이연숙·최혜인·허서령 동창 등 9명이 참가하였다.

박응임(가관 86) 동창

국립안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응임 동창이 교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제2대 교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8년 3월 1일(목)부터 2020년 2월 28(금)까지 2년간이다. 박 동창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41개교 중 교수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첫 여성 회장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상임이사, 안동시 보육정책 위원 등 아동·가정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응임 동창

서은미(동양 86) 동창

동양화가 서은미 동창이 서초동 코리아비즈니스 센터에 위치한 유디갤러리에서 7월 20일(금)부터 8월 14일(화)까지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서 동창은 개인전 및 초대작가전 10여 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수상, 한성미술대전 대상 수상 등 국내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미경(서양 86) 동창

7월 18일(수)부터 24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토포 하우스 2층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양화가 유미경 동창은 현재 자연미술협회 회장이며, 한국미협 회원, 한국여류화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경(도예 87) 동창

도예가이자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경 동창이 9월 4일(화)부터 11일(화)까지 서울 방배동 유중아트센터에서 ‘일기(一器), 일기(日記), 일기(一基)’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하루에 그릇 하나(一器)씩 만들어서 그날의 기억 흔적을 그릇 표면에 새겨(日記) 1년 동안(一基) 빚은 작품 365 점을 내보였다.



김미경 동창

김지희(조소 87) 동창

6월 5일(화)부터 24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갤러리 우물에서 ‘섬에 피다’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윤경미(서양 87) 동창

7월 25일(수)부터 31일(화)까지 갤러리 그림손에서 개인전 ‘Light Within’을 열었다.

제유성(서양 87) 동창

8월 29일(수)부터 10월 17일(수)까지 서울 카이스트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2층에서 개인전 ‘Prototype II(원형 2)’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색채와 유기적 형태로 내면 세계를 표현해 온 제동창의 최신작이 펼쳐진다.



권미경 동창

브랜드컨설팅 및 디자인업체 브랜드진 대표인 권미경 동창은 8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 농산물 유통CEO 상품화 전문경영자과정으로 일본 혼카이도의 농업, 식품 및 6차산업 선진지 사업체를 시찰하였다.

서수정(커미부 88) 동창

서울 갤러리아 백화점 내 르브아 베이커리 대표이며 2018년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서수정 동창이 시립용산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서수정 동창

이번에 받은 감사패는 어르신들과 독거 노인에게 수년째 빵과 케이크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의 정과 기부문화 정착에 공로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수정(제약 88) 동창

이수정 동창이 7월 9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연구직으로 시작했다가 행정직으로 전환한 뒤 의약품안전평과장을 맡아왔다.



호해란 동창

호해란(조소 88) 동창

6월 9일(토)부터 22일(금)까지 인천시 중구 해안동 소재 갤러리 GO(지오)에서 ‘꿈꾸는 집’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호해란 동창은 한국미술협회, 한국조각가협회, 이화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선영(조소 89) 동창

조각가 김선영 동창이 패션디자이너인 딸 임민서씨와 함께 뉴욕 철시 K&P Gallery 초대로 9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조각과 패션 콜라보 전을 가졌다.

김선영 동창은 이탈리아 베니스, 홍콩, 상하이, 베이징, 마이애미, LA, 일본 등에서 19회의 개인전과 220회의 단체전에 참여해 왔다.

남영호(무용 89) 동창

남영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기획 및 연출하는 한국문화예술 축제인 ‘코레디시(Coree dici)’가 프랑스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하는 제18회 한불문화상을 받았다. 코레디시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프랑스 남부 봉펠리에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문화예술 축제이다.

이인경(동양 89) 동창

‘KAIROS’라는 제목으로 6월 13일(수)부터 26일(화)까지 Able Fine Art NY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인경 동창은 전시 주제인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시간 개념 ‘Kairos’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였다.



이인경 동창

원영은(조소 90) 동창

춘천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원영은 동창의 ‘스위밍 에고 연작시집 출판과 그림모음 초대전’이 9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 강원연구원 1층 리그 갤러리(RIG GALLERY)에서 펼쳐졌다. 5일(수)과 12일(수) 오후 2시에는 원 동창의 시 낭송과 작품 설명의 시간도 진행되었다.

심경아(수학 92) 동창

심경아 동창이 팀장으로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암호기술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공개키 암호는 공개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제 표준화가 추진된다. 심 동창은 2008년부터 연구 소내 암호 분야 연구를 개척했고 지금은 5명의 암호 팀을 이끌고 있다.

이희준(약학 92) 동창

서강대 교수 이희준 동창이 극본을 쓴 작품인 <신흥무관학교>(김동연 연출)가 9월 9일(일)부터 23일(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공연되었다.



이희준 동창

김윤경(조소 93) 동창

7월 20일(금)부터 9월 30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환기미술관 별관에서 ‘프리환기 Prix Whanki 선정작’ 특별전 ‘공간입기(Wearing Space)’를 개최하였다.



김윤경 동창

문경원(서양 93) 동창

문경원 동창이 전준호 작가와 함께 영국 테이트 리버풀 미술관에서 개인전 ‘뉴스프럼노웨어(News From Nowhere)’를 11월 23일(금)부터 개최한다. 이 전시는 테이트 리버풀 미술관 창립 30주년과 2008년도에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리버풀의 1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전시이다.

서희정(성악 94) 동창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서희정 동창의 독창회가 6월 22일(금)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서 동창은 프랑스 생 모르 국립음악원 최고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하였으며, 이후 애꼴 노르말 성악과 및 오페라과 역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석 졸업하고, 최고연주자과정 디플롬을 취득했다.

최수현(섬예 94) 동창

패션디자이너 최수현 동창이 6월 28일(목)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제1회 미즈 머큐

어'에서 수상하였다. 미즈 머츄어는 남성에 못지 않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의 롤모델이 될 만한 여성들로 구성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김은희(성악 95) 동창

6월 27일(수)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독창회를 열고 로시니, 쇤베르크, 호아킨 투리나의 가곡들과 이원주, 김주원의 한국 가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주었다. 소프라노 김은희 동창은 모교 성악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지현 동창

김지현(작곡 95) 동창

8월 17일(금) 오후 8시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점이 움직이는 자리'를 테마로 두 번째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김지현 동창은 현재 가천대 작곡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창악회, 한국여성작곡가회, 한국전자음악협회, ACL Korea, ISCM Korea, 텔로스 등의 회원이다.



박영신 동창

박영신(약학 95) 동창

한국엘리간에서 제약사업부를 총괄해온 박영신 동창이 한국애브비 면역학사업부 총괄로 영입되었다. 박 동창은 GSK 호흡기 사업부 마케팅과 자궁경부암 백신사업부 총괄 등을 역임하였다.



박영신 동창

배서영(의학 96) 동창

인제대 상계백병원 족부·족관절센터 교수로 재직 중인 배서영 동창이 최근 열린 미국 족부족관절학회에서 제정한 '제1회 국제 여성 리더십 어워드

(International Women's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족부·족관절 수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전문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조양희(무용 96)·마승연(무용 03)·허은금(무용 15) 동창

현대무용단 탐이 8월 25일(토) 서강대 메리홀에서 제8회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양희 동창의 <낱과 짹의 조우>, 마승연 동창의 <Sense>, 허은금 동창의 <비어 있는 질문>이 공연되었다.



조양희 · 마승연· 허은금 동창

백혜랑(법학 01) 동창

변호사 백혜랑 동창이 부산시 아동권리 대변인에 선정됐다. 아동 권리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폭행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제 및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백혜랑 동창

백혜랑 동창은 현재 부산변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정현(약학 02) 동창

약사 김정현 동창이 7월 7일(토) '공생균 연구소 MQ랩'을 개소하였다. 균에 대해 연구하고, 균의 효과, 좋은 균을 길러야 하는 이유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연구소이다.

김선옥(피아노 03) 동창

7월 13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 음악이 흐르는 피아노 VI'을 가졌다. 김선옥 동창은 모교 음대 및 동 대학원에 출강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실내악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선옥 동창

최유진(관현 03) 동창

7월 1일(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현악, 관악 피아노 연주자들로 구성된 양상을 에스쁘아 제5회 정기연주회가 있었다. 플루티스트 최유진 동창은 한국플루트협회와 한국플루트학회 이사이며, 솔로이스츠 체임버그룹 멤버, 이화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이다. 현재 모교와 선화예고, 고양예고에 출강 중이다.



최유진 동창

현준희(관현 03) 동창

7월 11일(수)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열었다. 현준희 동창은 현재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김포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과 니즈 양상을 멤버이며, 계원예술, 인천예고, 서울시교육청 초등음악영재원, 하나님을 위한 음악재단에 출강하고 있다.



현준희 동창

김세연(피아노 04)

8월 24일(금)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김세연 동창은 현재 음악예술학회 회원과 양상을 피아니스타 단



김세연 동창

원으로 활동 중이며, 선화예중·고, 인천예고, 영신여고 음악중점학교, 인천여중 음악중점학교에 출강 중이다.

김유미(무용 04) 동창

8월 31일(금)부터 9월 1일(토)까지 돈의문박물관 마을에서 김유미 동창이 안무를 맡은 <시간 안의 상처>가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사업 선정 작으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김유미 동창은 미국 애틀랜타 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다 2016년 귀국하여 안무작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윤지(성악 04) 동창

9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이윤지 동창이 귀국 독창회를 열었다.

이윤지 동창은 올해 귀국하여 제10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수상자 갈라 콘서트에서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국립 오페라단 주관 프로그램인 '학교 오페라' <사랑의 묵약>에서 주역으로 활약 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 경상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윤지 동창

오민정(피아노 05) 동창

8월 5일(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다. 한국피아노학회 부총무와 연주분과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양상을 피아니스타와 PIANOMO 멤버로 활동하는 동시에 서영대학교(파주캠퍼스)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민정 동창

정다운(법학 05) 동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에 변호사 정다운 동창이 최종 낙점되어 7월 1일(일)자로 발령받았다.

심평원 법규송무부장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평가 소송수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소송과 행정심판 지원·법률검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개정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 동창은 2008년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고 2009년부터 심평원 촉탁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다운 동창

길재영(동양 06) 동창

이화아트센터에서 '투영된 주체의 저편'이라는 제목으로 6월 5일(화)부터 9일(토)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길재영 동창

송주현(심리 07)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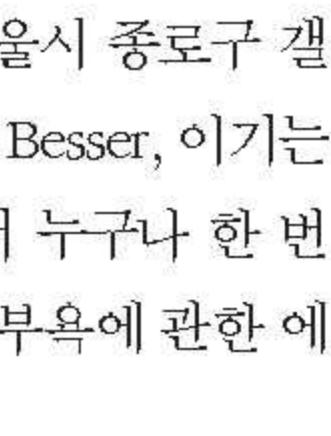
송주현 동창이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아동발달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송 동창은 모교 심리학과를 수석졸업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SK재단의 해외장학생으로 선발돼 미시간대에서 발달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2년간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송주현 동창

김효은(회화·판화 08) 동창

7월 4일(수)부터 13일(금)까지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도스 신관에서 'Gewinnen Ist Besser, 이기는 것이 좋아' 전을 열었다.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직접 느끼고 겪었을 법한 승부욕에 관한 에



피소드를 모아 밝은 색감과 위트 있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박민하(서양 08) 동창

박민하 동창의 영화 <코스믹 켈레이도스코프>가 6월 20일(수)부터 7월 1일(일)까지 열린 제72회 에든버러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영화 특별언급상(The Short Film Award Special Mention)을 수상했다.

에든버러국제영화제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최되며, 전세계 비경쟁 영화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국제영화제다.

원현정(피아노 08) 동창

피아니스트 원현정 동창이 6월 29일(금)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 '서울 아카데미 양상불'의 52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협연하였다.



원현정 동창

성해라(관현 09) 동창

9월 16일(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플루트 독주회를 열었다. 성해라 동창은 현재 인천예술고등학교 영재원에 출강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동시에 목관양상불 'Sextett Ventus', 현대음악 양상불 'Essenz'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성해라 동창

민지원(동양 10) 동창

6월 20일(수)부터 26일(화)까지 '색채유영(色彩游泳)-위로를 담은 몸짓'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갤러리 너트에서 가졌다. 한지를 여러 겹 빌라 만든 장지와 전통 안료 등 전통 재료로



민지원 동창

작업한 것이 특징이다.

장지는 자연스러운 스며듦과 번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통 안료로 표현한 색채는 인위적이지 않고 조화롭다.

신나영(한음 10) 동창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의 대표 신나영 동창이 7월 9일(월) 서울 서초구 정효아트센터 음악당에서 공연하였다.

공연 타이틀 <Fun Fun 憎(뻔뻔한) 해금>은 ‘재미 있는, 즐거운’ 등의 뜻을 갖고 있는 ‘Fun’과 ‘한스럽다는 뜻을 가진 ‘한(恨)’자를 결합해 만든 것이다. 한편 다스름은 ‘2018 다스름 월요상설공연 STANDOUT CONCERT’ 공연으로 국악 대중화를 실천해 가고 있다.

김진주(서양 11) 동창

7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갤러리도스에서 ‘The Record Of Migration - 두 개의 달, ‘Hollowness’에 대한 연구’ 전을 열었다.

이재은(커미부 12) 동창

MBC 간판 뉴스 ‘뉴스데스크’의 새 앵커로 아나운서 이재은 동창이 낙점됐다. 개편된 ‘뉴스데스크’는 7월 16일(월)부터 방송하며, 이 동창은 왕종명 아나운서와 함께 평일 진행을 맡게 되었다.

진희란(동양 13) 동창

‘설악산, 산수화’라는 주제로 7월 18일(수)부터 27일(금)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수묵담채 선염과 부감법 등 전통 산수기법을 응용한 작업으로 설악산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산

수화를 선보였다.

탁민경(앨리스유·서양 13) 동창

7월 7일(토)부터 26일(목)까지 이상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상처는 별이 되죠’전을 개최하였다. 탁 동창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회화 작업 15여 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현정윤(서양 13) 동창

8월 6일(월)부터 9월 1일(토)까지 영국 런던의 주영한국문화원 전시공간 KCC스페이스에서 ‘Walking On Tiptoes’전을 열었다. 현정윤 동창은 ‘주영한국문화원-스페이스 스튜디오 어워드(Space Studio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돼, 런던의 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최근 1년간 머무르며 작업했다.

박윤지(동양 14)·심예원(동양 14)·김수영(동양 15)·유진영(동양 15)·강성아(MOOA·동양 16)·김소현(동양 16)·류지민(동양 16)·문현지(동양 16)·이인혜(동양 17) 동창

분당 서울대병원 신관 1층 갤러리 스페이스 유에서 ‘9개의 시선’ 전을 9월 28일(금)까지 가졌다. 이번 전시는 모교 동양화과 동창들의 연합전으로 9명의 동창 작가가 참여하였다.

병원 안에 위치한 갤러리의 특성을 살려 전시장 중간에 작품 엽서를 제작해 전시해 놓아 관람객이 지인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할 수 있었다.



진희란 동창



박윤지·심예원 동창

동창이 폐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박동순(영문 62) 동창

박동순 지음 / 카리타스

-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박동순 동창이 팔순 기념 회고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폐냈다. 회고록은 19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대학이 현재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과 2만 명이 넘는 재학생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꿈과 비전, 희망과 좌절을 담고 있다. 박동순은 1965년 남편 장성만 박사와 함께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출발이었던 영남기독교실업학교를 세웠다.



한국 패션 100년을 꽂피우다 신혜순(가정 62) 동창

신혜순 지음 / 동방미디어

- 한국 패션의 대모 고 최경자 여사의 장녀이자 국제패션연구원 원장 및 한국현대의상박물관 관장인 신혜순 동창이 패션 에세이를 출간했다. 함께해 온 패션인들, 역사적인 전시와 패션쇼, 한국현대의상박물관의 설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한국 패션의 역사가 펼쳐진다.



시에 살고 고향에 살고 신필주(국문 73) 동창

신필주 지음 / 마을

- '푸른 시와 시인'이라는 부제의 『시에 살고 고향에 살고』는 시인 신필주 동창의 일곱 번째 시집이다. 8부로 나뉜 시집에 총 40편의 시를 담았고, 서양화가 주한경 씨의 채색판화 8장도 실려 있다. 신동창은 1980년에 박두진 시인 추천으로 《현대문학》지로 등단했으며, 이화문학상, 울산시 문화상, 창릉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울산에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뉴욕의 사계 여주영(커미부 73) 동창

여주영 지음 / 프라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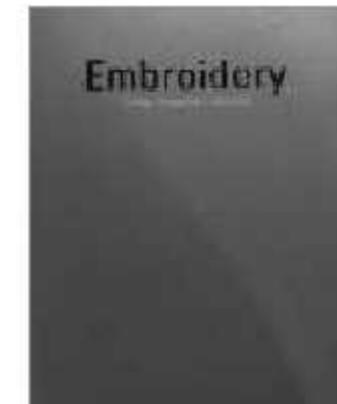
- 여주영 동창이 뉴욕 한국일보 재직 30주년을 기념하며 30년 경력의 기자의 눈으로 해부한 한인 이민사회 의 현주소를 칼럼집으로 묶은 『뉴욕의 사계』를 출간했다.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겪은 아픔과 슬픔, 기쁨과 보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책이다. 출판기념회는 9월 13일(목)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여동창은 1988년 뉴욕한국일보에 입사, 취재부 기자를 거쳐 편집국장까지 지낸 후, 현재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 중이다.



Embroidery 장영란(섬에 77) 동창

장영란 지음 / 트윈벨 글로벌

- 수원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잔느 국제 섬유비엔날레 심사위원인 장영란 동창이 우리 자수 모음집을 출간하였다. 활옷을 비롯하여 병풍 족자, 흥배, 수조각보 등 30여 년간 수집해 온 작품을 책에 담았다. 장동창은 전통자수의 미적, 예술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자수 문화유산이 모두에게 전달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쁜 젊은 날 진희숙(종음 79) 동창

진희숙 지음 / 삼인

- 『우리 기쁜 젊은 날』은 음악평론가 진희숙 동창이 자신의 대학 시절을 회고하는 책이다. 긴급조치와 계엄령 등의 단어가 난무하는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이 회고록은 시종일관 심각해야 할 것 같은데, 진동창의 문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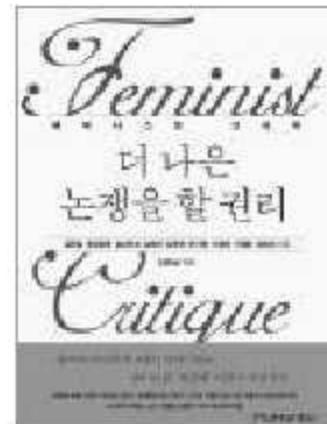
담담함을 넘어 유쾌하다. 동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에게 추억의 향연을 선사할 책이다. 진 동창은 서울시립 교향악단 월간지 〈SPO〉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여러 언론 매체에 예술 평론과 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KBS 와 MBC에서 음악프로그램 전문 구성작가로 활동하였다.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김은실(영문 80) 동창

김은실 외 지음 / 휴머니스트

-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김은실 동창이 제자 8명과 함께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즘을 말한다. 성폭력 폭로 이후 피해자가 겪는 문제,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쟁, 걸그룹을 바라보는 대중 심리, 저출산 문제를 인구 위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의 맹점 등 한국 여성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서구의 이론이 아닌 우리만의 언어로 젠더에 관한 기존의 문제 제기와 사유 방식을 깨뜨린 책이다.



내 이름은 이강산 신현수(국문 84) 동창

신현수 지음 / 꿈꾸는 초승달

-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던 '창씨개명'에 대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동화책. 이 책은 평범한 소년 강산이를 통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식량과 생활필수 품의 배급을 받을 수 없었고, 학교에도 다닐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현수 동창은 국민일보 기자로 일하다 2002년 여성동아 장편소설에 당선되며 작가가 됐다.



목소리로 어필하라 정보영(경제 87) 동창

정보영 지음 / 한국경제신문

- 정보영스피치아카데미 대표 정보영 동창이 『목소리로 어필하라』를 출간했다. 말하기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3주만 노력하면 누구나 아나운서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동창은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말하기 습관부터 점검해 보라”



고 조언하며 외모를 이기는 최고의 매력 자본인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동창은 1986년부터 1993년 까지 MBC 아나운서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부산대, 동서대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최샛별(사회 93) 동창

최샛별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은 문화사회학적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세대론 및 세대 현상의 특성을 탐구한다. 또한 세대별 가치관 차이와 갈등 양상을 밝힘으로써 한국의 '세대' 현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최샛별 동창은 현재 모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대학원 문화예술정책학전공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문화사회학회 등재지 《문화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존 밀턴의 복낙원 박성혜(기독 95) 동창

존 밀턴 지음, 박성혜 옮김 / 도서출판 바울

- 『실낙원』의 후속편인 존 밀턴의 『복낙원』을 박성혜 동창이 번역하였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은 부분이 성경에는 비교적 짧게 나와 있으나, 존 밀턴은 해박한 성경적 인문학적 지식과 함께 특유의 무궁한 상상력으로 예수와 사탄의 대화를 정교하고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존 밀턴의 『복낙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한 번쯤은 꼭 읽어야 할 고전 작품이다.



석세스 애티튜드

이병구(이화·한경ACE아카데미 15) 동창

이병구 지음 / 한국경제신문

- 주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동창이 창업 후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해 온 네페스의 성장 비결을 책에 담았다. 종체적 관점에서 '4차원 경영'이라 이름 부르는 경영 기법의 세부적인 실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것이 인상적이다. 네페스가 실천하는 '생각-말-일'이라는 3가지 순환 고리는 우리의 삶과 경영 전체를 결정하는 석세스 애티튜드가 될 것이다.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평생회비, 연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시면 연회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0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8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1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이사를 하실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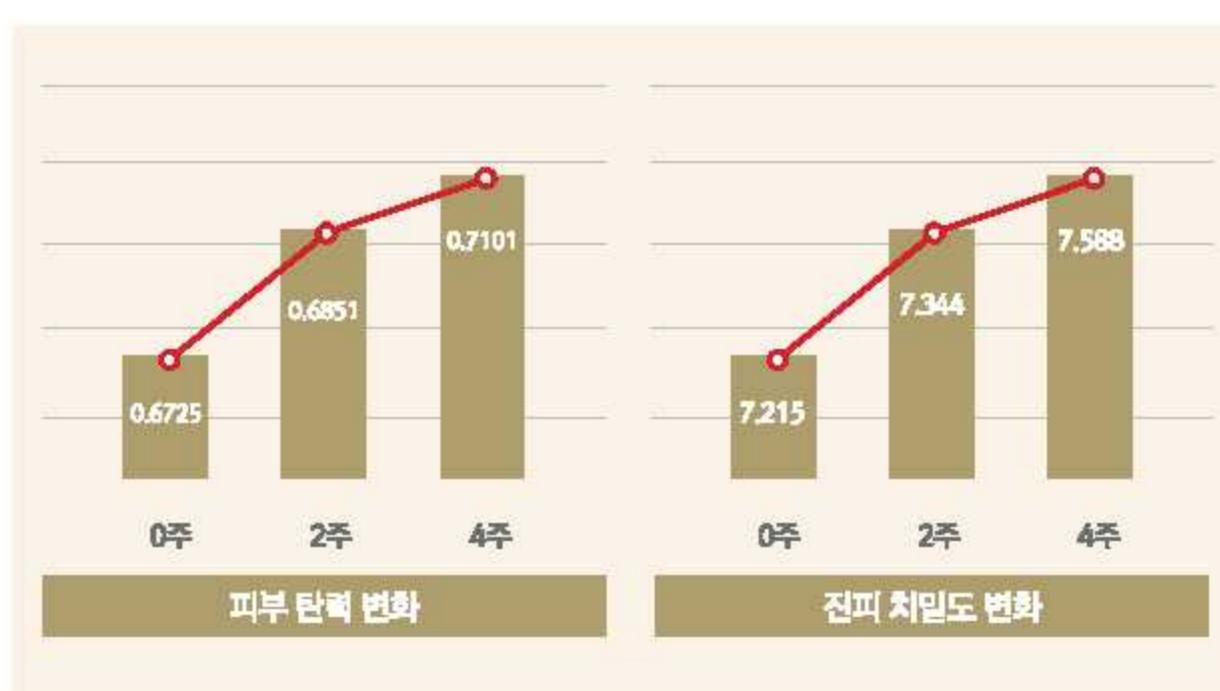


탄탄하게 세우고, 촘촘하게 채우는
코어탄력



천연유래성분만으로 이런 효과? 아이소이는 가능합니다!

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된 코어탄력 개선 효과!



눈에 보이는 겉탄력은 물론, 깊은 코어층까지
에너지를 채워주는 아이소이 코어탄력의 힘!
불가리안 로즈 오일과 천연유래성분의 진한
영양으로 탄력, 보습, 미백, 주름까지!
하루하루 달라진 피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 1800-9100
www.isoi.co.kr

isoi